

마음을 쉬어라 쉬는 까닭에
일체가 내게로 상응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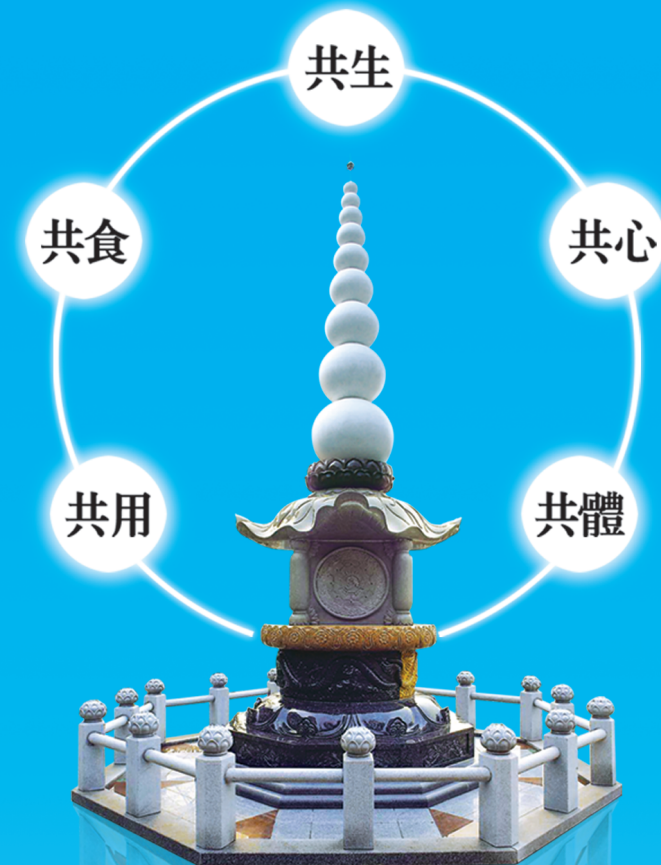
— 대행선사법어 —



제13회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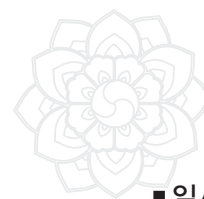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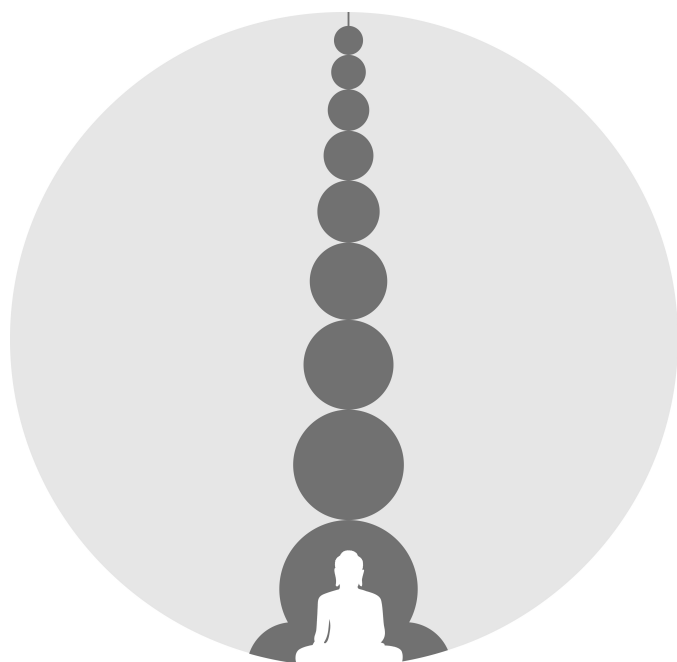
2022. 12. 17(토) 13:30-17:40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 3층



마음을 쉬어라 쉬는 까닭에
일체가 내게로 상응하게 된다

제 13 회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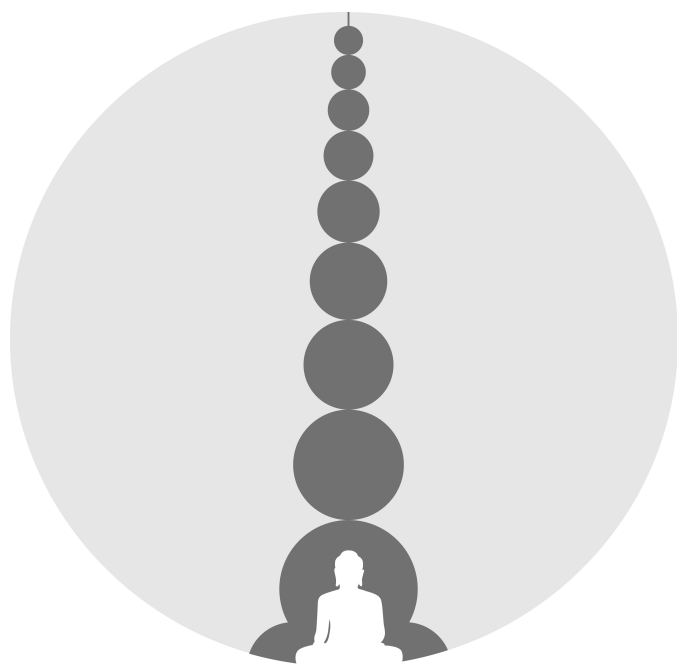


제13회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

- 일시 : 2022. 12. 17(토) 13:30 - 17:40
- 장소 :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 3층
- 한마음선원 생중계 링크 :
<https://www.youtube.com/user/HanmaumTem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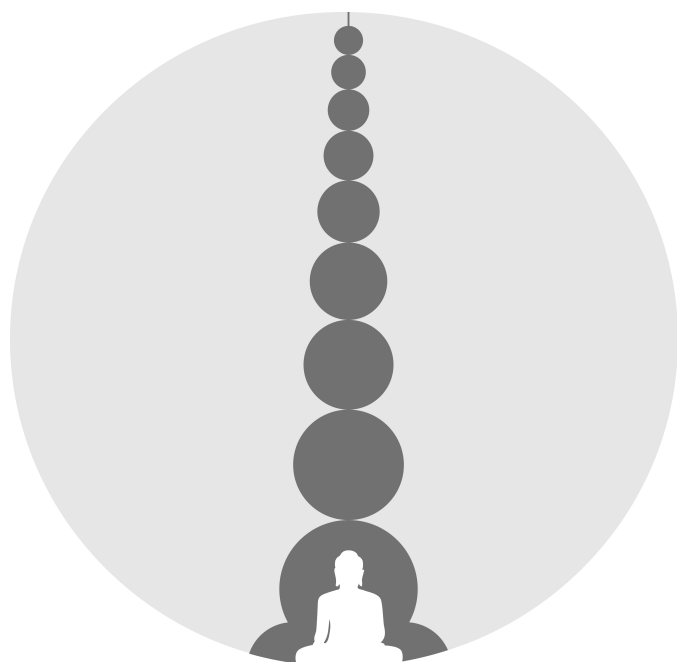
You Tube
유튜브 한마음선원
채널 생중계

시 간	내 용		사회자
1부 개회식			사회: 이석환 (대행선연구원) 집전:혜안스님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13:30~13:50	개회사		
	삼귀의례		
	대행선사 뜻풀이 반야심경		
	인사말씀	원장 혜선스님	
	환영사	(재)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스님	
	공지사항		
사홍서원			
2부 학술발표 (각 주제별 : 30분 발표, 각 10분 논평, 50분 토론광장)			
13:50~14:00	제1발표준비		안성두 (서울대)
14:00~15:40	· 발 표 : 법장스님(해인사승가대학) · 논 제 : 『범망경』 주석서에 나타난 계체론 연구 · 논평1 : 이자량(동국대) · 논평2 : 고승학(금강대) · 토론광장		
15:40~15:50	제2발표준비		
15:50~17:30	· 발 표 : 백도수(능인대학원대학) · 논 제 : 한마음선원의 전법토대와 전법실천방안 고찰 · 논평1 : 서재영(성철사상연구원) · 논평2 : 김봉래(BBS) · 토론광장		
17:30~17:40	폐회식 (마무리 인사)		



좌장 : 안성두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한국불교철학을 전공한 후, 독일 함부르크대학에서 인도불교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
 - 금강대학교 교수를 거쳐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역임. 현재 한국불교연구원 원장으로 있음.
 - 저·역서 및 논문으로는 「유식학의 범무아 해석과 그 증득 방법」 외 40 여 편이 있고, 「보살지」와 「보성론」 등 인도불전에 대한 번역이 다수 있음.
-



목 차

[제1발표]

법장스님 [발 표] 『범망경』 주석서에 나타난 계체론 연구 09

이자랑 [논평1] 「『범망경』 주석서에 나타난 계체론 연구」를 읽고 - 논평문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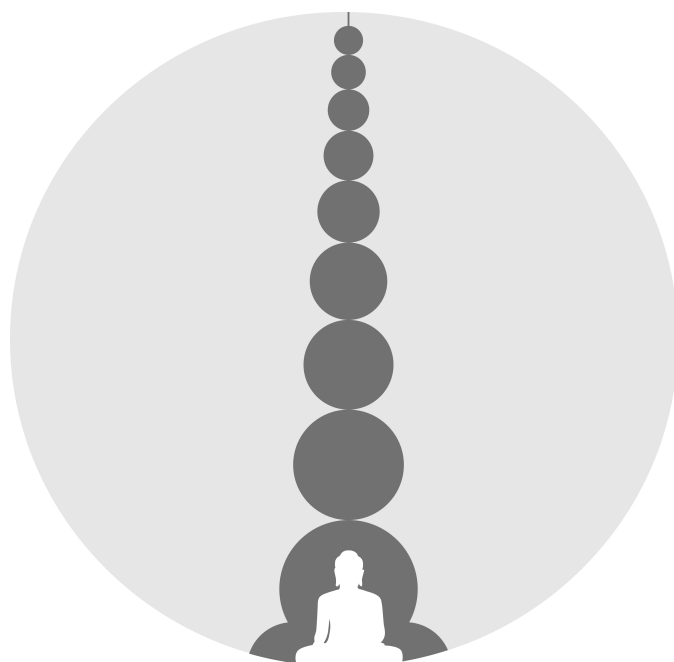
고승학 [논평2] 「『범망경』 주석서에 나타난 계체론 연구」 - 논평문 42

[제2발표]

백도수 [발 표] 한마음선원의 전법토대와 전법실천방안 고찰 51

서재영 [논평1] 「한마음선원의 전법토대와 전법실천방안 고찰」 논평문 90

김봉래 [논평2] 「한마음선원의 전법토대와 전법실천방안 고찰」 논평문 98



발표 -1 『범망경』 주석서에 나타난 계체론 연구

법장스님 (해인사승가대학)

- 일본 하나조노(花園)대학에서 「범망경 주석사(註釋史)의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 취득.
 - 현재 해인사승가대학 학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겸임교수,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아사리, 일본 선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
 - 저·역서와 논문으로는, 『인터넷카르마』 (사사키 시즈카 지음, 법장 옮김, 2021), 『과학의 불교』 (사사키 시즈카 지음, 법장 옮김, 2017) 등이 있음.
 - 수상 내력으로는 2022 년 불이상 연구분야, 2018 년 일본 인도학불교학회 학회상, 2017 년 한국불교학회 불교학술진흥상 최우수상 등을 수상한 바 있음.
-



법장스님 (해인사승가대학)

『범망경』 주석서에 나타난 계체론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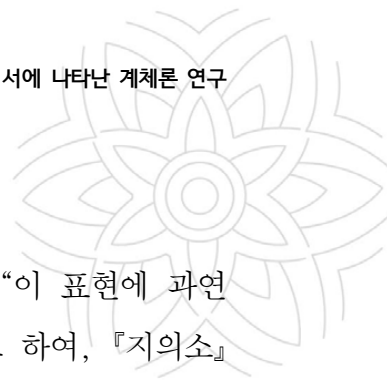
I. 서론	11
II. 선행연구	12
III. 천태지의의 계체론- 성무작가색	18
IV. 원효의 계체론- 심법계체	23
V. 현수법장의 계체론- 비색비심	27
VI. 결론	31

I. 서론

대승보살계를 대표하는 『범망경梵網經』은 전체 경명인 『범망경노사나 불설보살심지계품제십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에 나타난 심지계心地戒라는 표현과 같이 불성의 주체인 마음(心)을 중심으로 계체가 설해지고 있는 보살계 경전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망경』의 주석서 중에는 단순히 마음만으로 계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하고 심오한 형태로 계체론戒體論을 논하고 있다. 특히 『범망경』의 가장 오래된 주석서라 일컬어지는 천태지의天台智顗(538-597)의 『보살계의소菩薩戒義疏』(이하 『지의소』)에서는¹⁾ 성무작가색性無作假色이라는 천태만의 특수한 성性の 작용을 중심으로 무작의 가색이라고 나타내어 색법계체와도 유사한 계체론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화엄경』과 더불어 『범망경』의 유통에도 큰 영향력을 끼친 현수법장賢首法藏(643-712)의 『범망경보살계본소梵網經菩薩戒本疏』(이하 『법장소』)에서는 비색비심非色非心이라고 하여 심법도 색법도 아닌 형태의 계체론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심지계라고 불리는 『범망경』에 대한 주석임에도 마음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형태의 계체론이 논해지고 있는 점은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범망경』의 주석서 중 『지의소』의 성무작가색과 『법장소』의 비색비심과 더불어 심법계체의 입장에서 『범망경』을 주석하였다는 원효元曉(618-676)의 『범망경보살계본사기梵網經菩薩戒本私記』(이하 『원효

1) 吉津宜英(1991, 566)는 “법장 이전의 『범망경』 주석으로서는 『고승전高僧傳』의 저자인 혜교慧皎(497-554)에게 『범망경소梵網經疏』가 있어서 세상에 유통되었다고 하는 등 여러 주석서가 있었으나 현존하는 것으로는 천태소天台疏가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하여, 현존하는 『범망경』 주석서 중에서는 『지의소』가 가장 오래된 주석서인 것을 주장한다. 『續高僧傳』(T50, 471b13), “釋慧皎, 未詳氏族, 會稽上虞人. 學通內外博訓經律. 住嘉祥寺, 春夏弘法, 秋冬著述. 選涅槃義疏十卷及梵網經疏行世.”



기)까지 포함하여 『범망경』의 계체론을 대표하는 3개의 주석서의 상이점과 유사성을 파악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주석서들의 관계성을 토대로 『범망경』의 계체론이 변천된 과정과 원인을 고찰하여 『범망경』의 경명에 나타난 심지계에 대한 계체론은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하겠다.

II.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지의, 원효, 법장의 『범망경』주석서에 나타난 계체론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이에 3인의 주석서에 관한 여러 연구 중에서 계체론을 다룬 선행연구만을 확인하겠다.

『지의소』에서는 『범망경』의 계체를 성무작가색이라는 특수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해석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한 선행연구 중에서 주목해야 할 것으로, 우선 오노 호우도는 「계체론戒體論」에서 천태원교圓教에 입각하여 『지의소』의 계체론을 설명한다.²⁾ 성무작가색의 성성에 대하여 “계체를 발동하면 그 성에 의하여 무작의 가색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한다. 이 ‘성’의 개념을 천태교학에서는 특히 중시하여 ‘원교의 인간본구人間本具의 성덕性德 사상’을 통해 『지의소』의 계체론을 해석하고, “계체는 본유本有한 실상의 이치인 성덕이 수계로 인해 작동되어 수덕修德이 되고, 그것이 생활의 주체로 활동작용活動作用하는 것을 역설하는 전통이 있다. 보살계 경의 내용을 원교로 보는 이상, 원교 사상을 통해 계체를 설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천태교학적

인 해석은 원교의 개념에 한정된 것으로 오노 자신도 “이 표현에 과연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가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하여, 『지의소』의 계체론을 원교의 개념만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³⁾

코데라 분에이는 「천태계소의 성립에 관한 고찰(天台戒疏の成立に關する一考察)」에서⁴⁾ 『지의소』의 계체론에 대해 “종래의 천태는 색법불이色法不二를 설하기에 계체는 심법이든 색법이든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는 회통설이 받아들여져 왔다”고 한다.⁵⁾ 또한 현행하는 『마하지관』에는 설명되어있지 않으나, 『원돈지관門頓止觀』에는 대승에도 무작계無作戒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이 무작계를 권증權證하는 것이 천태계소天台戒疏로서 ‘성무작가색’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증진証眞은 이 무작계의 설이 용수龍樹의 『대지도론大智度論』에 나온 것이라고 하며, 진여성덕眞如性德의 이치理에 의해 생기지 않았으나 생긴 소득무작所得無作의 가색假色으로, 현행하는 삼대부에 설해진 심법계체설과 천태계소의 색법계체설의 모순에 대해 전자는 교리敎에 의한 것이고, 후자는 이치理에 의해 건립한 것이라며 회통하고 있다”고 하여⁶⁾ 『지의소』는 이치에 의해 권증의 방편으로 색법계체가 설해진 것이라고 설명한다.

『지의소』의 계체론에 대한 선행연구 중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히라카와 아키라의 연구이다. 히라카와는 「지의의 계체론에 대해서(智顗の戒體論について)」에서 『범망경』의 경구죄 23조의 호상好相을 보는 내용과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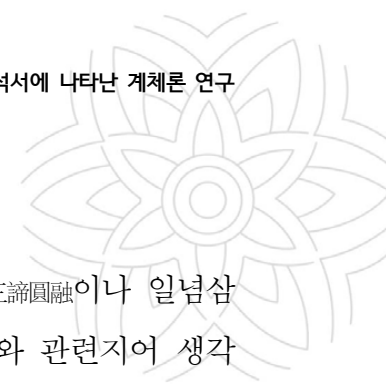
2) 법장(2020), 64-65.

3) 大野法道(1958), 7-8.

4) 법장(2020), 65.

5) 小寺文顯(1973), 49-50.

6) 小寺文顯(1973), 50.



구죄 41조의 칠역죄七逆罪를 어긴 사람이 수계할 수 있는 내용을 통해 『지의소』의 계체를 색법이라고 주장한다.⁷⁾ 또한 「지의에 있어서의 성문계와 보살계(智顗における聲聞戒と菩薩戒)」에서 지의가 수계한 구족계가 『십송율十誦律』인 것을 확인하여⁸⁾ 지의가 색법 계체를 논한 이유로써 “『십송율』로 구족계를 받은 지의에게 있어 유부의 계체론을 부정하는 것은 자신이 받은 계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⁹⁾ 다시 말해 유부의 『십송율』로 수계한 지의가 자신의 계체를 인정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의소』에서 색법계체를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히라카와의 주장에 대해 키타즈카 미츠노리는 “지의가 십송율로 구족계를 받았기 때문에 유부의 무작의 계체론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경론의 전거로서 무작의 가색을 계체로 삼은 것”이라고 하여 히라카와의 설을 부정한다.¹⁰⁾ 하지만 히라카와 본인도 지의의 계체론에 대해 “만약 지의가 십송율에 중점을 두고 계를 이해했다고 한다면, 그의 계관은 십송율의 계의 실천과 범망경의 실천 사이의 균형 위에 형성되어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며, 특히 대승계를 중시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¹¹⁾ 그리고 “의소에서는 이치로서는 무작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문敎門의 설명에서는 무작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이것은 ‘권權’이다. 지금은 권의 입장에서 ‘무작이 있다’

고 한 것이다. 이상의 의소의 무작의 이행은 삼제원융三諦圓融이나 일념삼천一念三千, 일심삼관一心三觀 등의 천태의 기본적인 교리와 관련지어 생각해보아도 결코 모순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하며,¹²⁾ 또한 “그의 계체론이나 보살계도 삼제원융의 입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¹³⁾ 즉, 『지의소』의 성무작가색이라는 특수한 계체론은 단순히 색법이나 심법에 구한되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보다 다각도의 시점에서 파악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원효기』와 『법장소』의 계체론에 대한 현재까지의 선행연구가 극히 적기에 두 사람에 대해서는 계율관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확인하겠다. 최원식은 『신라보살계사상사연구』에서 원효가 『열반경중요』에서 지의의 이름을 거론한 것을 근거로 하여 『범망경』을 주석할 때에도 『지의소』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¹⁴⁾ 그리고 『원효기』에서 비판되고 있는 ‘소운疏云’과 ‘소주운疏主者’의 내용이 『지의소』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것을 거론하며 원효가 『지의소』의 내용을 비판하고 있다고 한다.¹⁵⁾

요시즈 요시히데는 『화엄일승사상의 연구(華嚴一乘思想の研究)』에서 『법장소』를 전후로 하는 『범망경』주석서 11권을 분석하여 주석의 전체적인 흐름을 밝히고 있다. 특히 각 주석서에서의 『범망경』 상·하권의 주석에 따른 분류와 『화엄경』과의 비교 등을 분석하여 다양한 주석의 형태를 정리하였다. 요시즈에 따르면 지의는 보살인菩薩人만이 『범망경』을

7) 平川彰(1976), 766.

8) 平川彰(1997), 4-5. 히라카와는 『십송율』이나 『사분율』 등의 율장의 명칭은 찾을 수 없지만, 지의가 인용하고 있는 율의 법상法相이 『십송율』에서 인용한 것이 많은 점과 『사분율』, 『오분율』의 십리十利의 순서가 『십송율』이나 『마하지관』의 십리와 다르게 되어있는 점 등을 들며 지의와 『십송율』의 연관성을 밝히고 있다.

9) 平川彰(1997), 18.

10) 北塔光昇(2008),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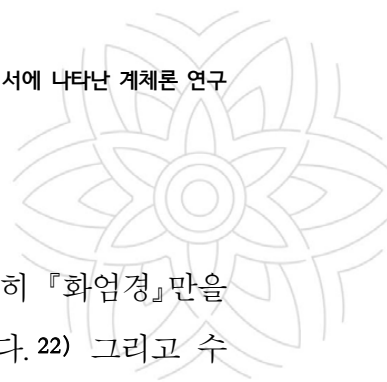
11) 平川彰(1997), 23.

12) 平川彰(1976), 767.

13) 平川彰(1997), 22.

14) 최원식(1999), 82-84.

15) 『원효기』에서 비판하고 있는 ‘소운’, ‘소주운’을 『지의소』의 내용으로 보는 견해는 吉津宜英(1991, 593)가 앞서 주장한 내용으로 요시즈는 이 내용을 근거로 『원효기』의 진찬설을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이 인용구를 통해 생각해 보면 현재 『지의소』에 대한 위찬설의 의문은 원효에게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계할 수 있다고 하여, 후대의 범장이 이승까지도 포함한 일체인一切人을 위한 가르침, 이른바 ‘누구라도의 계율’이라고 논한 것과 차이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범장은 『화엄경』과 『범망경』을 엄밀히 나누어 주석하지만, 원효는 지의와 같이 『화엄경』의 불신론佛身論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석하였다고 한다.¹⁶⁾ 또한 『원효기』는 “내용적으로는 천태소의 삼취정계 도입의 자세를 보다 진전시켜 달기達機나 이타利他 등의 독자적 보살관을 이루고 있다”고 하여, 원효는 지의의 영향을 받아 그 토대 위에 원효 자신의 독자적 사상을 더하여 『범망경』을 주석하였다고 한다.¹⁷⁾

그리고 요시즈는 『범망경』 제7 자찬훼타계自讚毀他戒의 주석에서 범장이 원효의 『보살계본지범요기菩薩戒本持犯要記』(이하 『요기』)에서 경중문輕重門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참조하였다고 하여¹⁸⁾ 범장이 원효의 주석을 인용한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범망경』 계송의 앞부분인 ‘아금노사나我今盧舍那, 방좌연화대方坐蓮華台’¹⁹⁾에서의 불신론佛身論에 대하여 “범장은 이 노사나불이나 천 석가, 백 천억 석가 등의 『범망경』만의 불신론과 『화엄경』의 그것을 엄밀히 구별하여 해석하지만, 원효는 천태, 의적, 승장, 태현과 같이 『화엄경』의 불신론, 즉 비로자나불의 세계를 『범망경』의 노사나불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고 하여²⁰⁾ 원효와 범장의 『범망경』과 『화엄경』에 대한 교판의 차이

를 지적한다.²¹⁾ 그러나 요시즈는 이어서 범장은 확실히 『화엄경』만을 일승교로 보지만, 『범망경』을 삼승이라고도 하지 않는다.²²⁾ 그리고 수계대상인 오종성五種性 전체에 실천의 가능성을 제시하여 삼취정계를 통해 대·소승 모두가 수계할 수 있다고도 한다.²³⁾ 또한 범장이 삼취정계를 중시하여 정신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은 원효와 같은 입장이라고 설명한다.²⁴⁾

20) 吉津宜英(1991), 573.

21) 범장(2017a), 84. 실제로 범장의 경우는 『범망경』의 ‘我今盧舍那’의 주석에서 “五依華嚴經, 無成無不成. 故盧舍那一切處皆實身成佛. : 다섯째는 『화엄경』에 의하면 이뤄지는 것도 없고 이뤄지지 않는 것도 없다. 그렇기에 노사나는 모든 곳에서 모두 참된 몸으로 성불한다”(T40, 606a08)고 설명한다. 또한 ‘方坐蓮華台’에서는 “故華嚴中大蓮華座不言葉數, 但云——華葉皆遍法界. : 그렇기에 『화엄경』의 대연화좌는 연잎수를 말하지 않고, 단지 “하나 하나의 연꽃잎은 모두 법계에 두루하다”고 하는 것이다”(T40, 606b08)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범장은 『범망경』과 『화엄경』을 구별하며 계송의 내용에 해당하는 『화엄경』의 경문을 인용하여 그것을 토대로 『범망경』을 설명한다. 그러나 원효의 경우는 ‘方坐蓮華台’의 주석에서 『화엄경』을 인용하여 연화장세계를 소개하고, 그것을 그대로 『범망경』의 연화장세계에 사용하고 있다.

22) 吉津宜英(1991), 323. 요시즈는 범장의 『범망경』에 대한 교판에 대해 “범장은 『범망경』을 삼승의 분계分齊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또한 “지엄이 『화엄경』은 일승, 『범망경』이나 『본업경』은 삼승이라고 한 입장을 계송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으나, 범장은 『범망경』을 삼승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이는 앞에서 확인했듯이 그가 본 경에 상응하는 기근을 오성 전체에까지 허용하여 삼승이라고 한정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1991, 614)라고 하여, 범장은 『범망경』을 삼승이라고 확실하게 정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23) 吉津宜英(1991), 613-614. “범장의 기근론은 사분율의 입장에 삼취정계를 도입하여 ‘분분으로 대승에 통한다’고도 하며, ... 도선은 칠중계도 대승계에 통한다고 하고, 범장은 대승계도 이승인이 수지할 수 있다고 하여, 방향은 정반대이지만 두 사람이 대소양승大小兩乘이라는 넓은 범위에 서있는 점에서는 공통되며, 특히 의적이나 승장과는 대립한다. ... 범장이 『범망경』의 계율을 다른 사람들처럼 보살인의 것이라고 한정하지 않고, 오성전체가 실천 가능한 것이라고 하여 어떤 누구라도 실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세간에 널리 『범망경』을 개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 해석의 곳곳에 중국의 현실과 타협한 자세가 보이는 결과가 된 것이다”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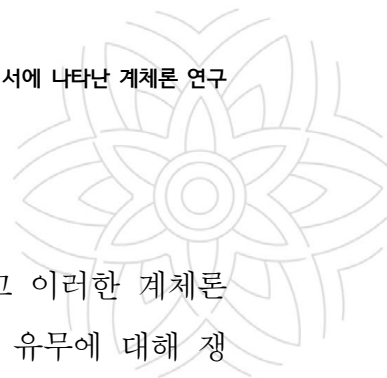
24) 吉津宜英(1991), 617-618. “정신성의 강조란, 삼취정계 중 섭율의계에 칠중계를 배당하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단지 삼취정계를 한결같이 칭송하는 것이다. 그럼 범장은 그 두 부류의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 분명히 원효와 의적의 계통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 그리고 “섭율의계를 십중금계로 한정하면 천태나 승장의 노선인 것이지만, 범장의 역점은 십중금계가 삼취정계에 통한다는 쪽이기에 원효나 의적에 근접한 것이 된다”고 논한다.

16) 吉津宜英(1991), 563-679.

17) 吉津宜英(1991), 574.

18) 吉津宜英(1991), 592. 요시즈는 “범장소 권3 ‘初篇自讚毀他戒第七’의 제7경중은 ‘一約境, 二約言, 三約對, 四約損, 五約心, 六約行’의 여섯 개로 나뉘어 설명되는데, 그 중 ‘五約心’과 ‘六約行’(大正藏四〇・六二八中-六二九上)에는 『持犯要記』의 ‘一輕重門’(續藏六一・一八三右 - 一八五右下)이 전면적으로 참조되어 있다”고 한다.

19) 『영락경』(T24, 1003c) 참조.



III. 천태지의의 계체론— 성무작가색²⁵⁾

지의는 『지의소』의 ‘삼중현의三重玄義’에서 “계체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대로이며, 일어난다면 성 무작의 가색이다.”²⁶⁾라고 계체론을 나타내고 있다. 이 ‘성무작가색性無作假色’이라는 개념에 의해 지의의 계체론을 색법계체로 보는 견해가 있다.²⁷⁾ 그러나 성무작가색이라고 밝히고 있듯이 지의의 계체론은 단순한 물질로 이루어진 색법과는 다른 대승만의 묘법妙法の 가색이다. 지의는 여러 저서에서 『대지도론』에 나온 십종계十種戒를 활용하여 대·소승의 계율을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 『범망경』은 ‘제10구족계具足戒’의 ‘중도제일의제계中道第一義諦戒’로 구분하고 있다.

『지의소』의 십종계에 나온 『범망경』의 위치에 대해 히라카와는 “의소에는 『범망경』을 십종계의 어디에도 배당하고 있지 않지만, 제10구족계를 설명하며” 앞에서 설명한 모든 계는 율의로 방지하기에 불구족이라 한다. 중도의 계는 갖추지 않은 계가 없기에 구족이라고 한다. 중도의 지혜를 써서 두루 모든 법에 들어간다. 그렇기에 구족이라고 한다. 이것은 이 중도 제일의 제계를 지닌 것이다”라고 한다. 마하지관의 해석을 지의소에 대입시켜보면 범망계는 중도제일의제의계가 되기에 제10구족계가 범망계가 될 것”이라고 하여²⁸⁾ 『범망경』은 수능엄정首楞嚴定에 의한 계이며 중도中道の 묘관妙觀을 본체로 하기에 중도제일의제계에 해당된다고 한다. 이처럼 지의는 『범망경』의 계를 중도묘관으로 이해한

토대 위에 성무작가색의 계체론을 설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계체론에 대해 “그것에 대해 경론에서 서로 말하며 (그 계체의) 유무에 대해쟁론한다”²⁹⁾고 하여, 지의 자신도 대·소승의 계체의 유무에 대해 논쟁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성무작가색의 무작은 무표색無表色과 같은 의미로 수계를 받을 때 계체를 얻어 방비지악防備止惡의 힘이 몸에 갖추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비지악의 힘인 무작은 불가견不可見의 물질(色, rūpa)이기에 심법계체에서는 무작에 의한 수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심법계체는 마음(心)이 계체이기 때문에 물질과 같은 계체는 인정될 수 없다. 또한 계체는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반면 색법계체는 무작(무표색)에 의해 수계가 이루어진다. 수계를 받을 때 불가견의 물질인 무작이 몸에 갖추어지고, 그것이 방비지악의 힘(보호막)이 되어 수계자를 지켜주는 것이다. 이처럼 무작의 유무에 따라 계체론은 크게 바뀌게 된다.

『지의소』에서는 무작에 대하여 무무작無無作과 유무작有無作으로 나누어 무표색이 없는 심법계체와 무표색에 의한 색법계체를 설명한다. 우선 무무작의 설명에서는 『보살영락본업경菩薩瓔珞本業經』(이하 『영락경』)을 인용하여 “모든 선인이나 범부의 계는 모두 마음을 체로 한다. 마음은 다함이 없기에 계도 또한 다함이 없는 것이다”라고 한다.³⁰⁾ 『영락경』의 이 구절은 대승계에서의 일득영불실一得永不失로 발전되는 내용으로 『영락경』은 심법계체를 토대로 “보살계에 수계는 있으나 사계捨法은 없다”고 설명한다.³¹⁾ 그리고 지의는 마음 이외에 ‘교敎, 진제眞諦, 원願’의 계

25) 본 장은 법장(2020)을 토대로 지의의 계체론을 파악한 내용임을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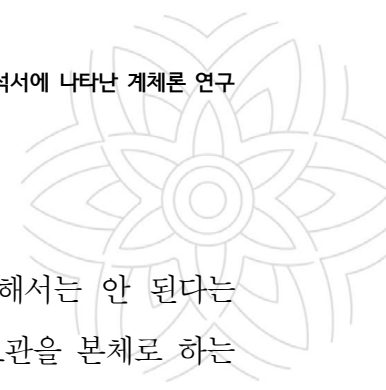
26) 『지의소』(T40, 565c29), “戒體者, 不起而已起即性無作假色.”

27) 선행연구 중 平川彰의 부분을 참조.

28) 平川彰(1976), 765.

29) 『지의소』(T40, 566a01), “經論互說淨論有無.”

30) 『지의소』(T40, 566a04), “瓔珞經云, 一切聖凡戒盡以心爲體. 心無盡故戒亦無盡.”



체만이 존재하고 그 외에 무작은 없다고 한다. 32)

다음으로 유무작에 대해서는 “대·소승의 경론에 모두 무작이 있으니 이는 모두 실법이다”라고 하지만³³⁾, 그 무작의 현현顯現에 대해서는 소승의 계체도 어떤 특별한 작용에 의해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마음의 힘의 뛰어난 작용[勝用]’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라고 하여³⁴⁾ 계체는 마음을 토대로 생겨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의는 그러나 대·소승에서의 계체의 차이에 대해³⁵⁾ 소승에는 『성실론成實論』의 비색비심과 「비담毘曇(아비달마)」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색의 두 종류의 계체가 있고, 대승도 색법계체가 있으나 소승과는 다른 대승만의 색법계체라고 한다. 36) 이러한 지

31) 『영락경』(T24, 1021b07), “菩薩戒有受法而無捨法.”

32) 『지의소』(T40, 566a05), “或言教爲戒體. 或云眞諦爲戒體. 或言願爲戒體. 無別無作.”

33) 『지의소』(T40, 566a15), “大小乘經論盡有無作. 皆是實法.”

34) 『지의소』(T40, 566a16), “心力巨大, 能生種種諸法, 能牽果報. 小乘明, 此別有一善, 能制定佛法. 憑師受發, 極至盡形. 或依定依道品別生. 皆以心力勝用, 有此感發.”
“마음의 힘이 거대하기에 여러 가지 모든 법을 생기게도 할 수 있고, 과보를 끌어당기게도 할 수 있다. 소승에서는 “여기에 따로 하나의 선이 있기에 불법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이다. 스승에 의지하여 수계할 때에 나타나고, 목숨이 다 할 때 사라진다. 또한 선정이나 도품에 의지하여 따로 생기기도 한다”고 말한다. 모든 마음의 힘의 뛰어난 작용(勝用)에 의해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35) 『지의소』(T40, 566a19), “成論有無作品云, 是非色非心聚. 律師用義亦依此說. 若毘曇義, 戒是色聚, 無作是假色. 亦言無教, 非對眼色.”
“『성실론』 「무작품」에서 “무작이란 색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것이 모인 것이다(非色非心)”라고 한다. 율사가 말하는 뜻도 이 설에 의거한다. 아비달마의 뜻에서는 “계는 색이 모인 것이고, 무작은 임시의 색(假色)이다”라고 한다. 또한 “무교라고도 하여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서의 색이 아니다(假色)”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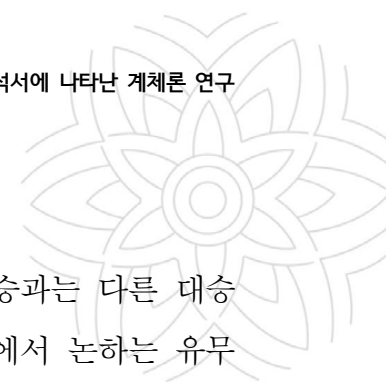
36) 『지의소』(T40, 566a22), “大乘所明戒是色法. 大論(問)云, (是色法可論)多少思是心數. 云何言多少耶. 觀論意, 以戒是色即問, 此是數義. 大乘云何而用數義. 解云, 若用非色非心, 復同成實, 還是小乘. 今言數家自是數色. (大乘是)大乘色, 何關數家.”
“대승에서 계가 색법임을 밝힌다. 『대지도론』에서 “계는 색법이지만 다소의 사람들은 심수라고 생각한다. 어째서 다소라고 하는가”라고 말한다. 논의를 살펴보면, 계는 색이라고 하며 묻는 것으로 이것은 수가의 뜻이다. 대승이 어찌하여 수가의 뜻을 쓰겠는가. 해석해보면, 만약 ‘비색비심’을 쓰면 다시 『성실론』과 같은 것이 되어 소승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된다. 지금은 수가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가의 색을 말한 것이다. 대승에는 대승의 색이 있거늘 어찌하여 수가에 관련하겠는가.”

의의 계체론은 대·소승의 계체를 동일한 개념에서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대승에서 말하는 색법계체란 중도묘관을 본체로 하는 대승만의 중도제일의제계이기에 ‘색법의 계체는 물질’이라는 개념과는 다른 이해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 지의는 『중론中論』을 인용하여 이러한 대승만의 계체에 대하여 “용어가 같기는 하지만 그 의미는 다르다”³⁷⁾고 하여 대·소승에서의 색법은 그 용어는 동일하지만 그것을 같은 개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소승과는 다른 대승만의 계에 대해, 그것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원동력이며 수계자의 서원의 마음에 의해 계의 선법이 생겨난다. 그리고 그 서원의 힘이 수계자의 의지처가 되어 방비지악의 힘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38) 또한 『보살지지경菩薩地持經』(이하 『지지경』)의 「지지계품地持戒品」을 인용하여 대승에서의 계의 특징을 설명한다. 대승의 계는 단순히 죄를 지어서 계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발보리심의 서원의 유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계는 마음으로 서원한 발보리심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어서 설사 범계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보리심의 서원을 버리지 않는다면 계를 잃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 39) 따라서 보리심을 지니고 있는 보살의 범계행은 악심에 의한 것이

37) 『지의소』(T40, 566a25), “今言數家自是數色. (大乘是)大乘色, 何關數家. 中論云, 語言雖同其心則異. 今大乘明戒是色聚也. 大乘情期極果. 憑師一受遠至菩提.”

38) 『지의소』(T40, 566a27), “今大乘明戒是色聚也. 大乘情期極果. 憑師一受遠至菩提. 隨定隨道, 誓修諸善, 暫度含識. 亦以此心力大, 別發戒善, 爲行者所緣, 止息諸惡.”
“지금 대승에서 계는 색의 모임인 것을 밝힌다. 대승에서는 마음이 궁극의 과에 이르기를 기대한다. 스승에 의지하여 한 번 계를 받으면 먼 장래에 보리에 이르게 된다. 정에 따르거나 도에 따르거나 마음으로 서원하여 모든 선을 닦고, 마음으로 서원하여 중생(含識)을 제도한다. 또한 이 마음의 힘이 크기 때문에 따로 계의 선을 일으켜서 수행자의 소원이 되어 모든 악을 그치게 하는 것이다.”

39) 『지의소』(T40, 566b06), “地持戒品云, 下軟心犯後四重, 不失律儀. 增上心犯, 則失律儀. 若不捨菩提願, 不增上心犯, 亦不失律儀. 若都無無作, 何得言失.”
“『지지계품』에서 말하길 “하연심에 의해 뒤에 네 가지 중죄를 어겼어도, 그것이 율의를 잃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중상만에 의해 어겼다면 율의를 잃는 것이다. 만약 보리심



아닌 중생제도를 위한 방편행方便行 이기에 대승의 계에서는 이러한 발보리심의 서원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지의는 대·소승계 무작의 차이에 관해 설명한 뒤 『지의소』에 나타난 무작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논한다.

무엇이 마땅한 도리가 되겠는가. 그러나 이치(理)는 마땅한 것도 아니며 마땅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마땅한 것도 마땅하지 않은 것도 모두 이치로도 교리(敎)로도 의미(義)를 논할 수 있다. 만약 없다고 한다면 이치에 마땅한 것이 된다. 만약 있다고 한다면 교리에 마땅한 것이 된다. 이치는 즉 실교이고, 교리는 즉 권교이다. 실교로서는 없는 것이지만 교리의 문(敎門)에서는 있는 것이 된다.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무작이 있다고 하는 설이다.⁴⁰⁾

무작의 유무는 각각 이치(理)와 교리(敎)에 해당하고, 다시 이치와 교리는 권실이교權實二敎의 실교實敎와 권교權敎에 해당한다. 즉, 무무작無無作은 이치의 실교로서 진실에 해당하고, 유무작有無作은 교리의 권교로서 방편에 해당한다. 『지의소』는 실교로서는 무무작의 입장이지만, 『범망경』이 교문敎門이기에 권교로서 유무작을 사용하고 있다.

즉, 『지의소』의 계체론은 진실로서는 심법계체이지만, 『범망경』이 계본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권교방편으로서의 색법계체를 사용하고 있는 형태로, 심법계체를 토대로 하는 방편으로서의 색법계체이다. 그렇기에

의 서원을 버리지 않고 증상만으로 어긴 것이 아니라면 율의를 잃지 않는다”고 한다. 만약 이것들의 전부에 무작이 없다면 어찌 율의를 잃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40) 『지의소』(T40, 566b23), “何者當道理耶。然理非當非無當。當無當皆得論理教義。若言無者，於理爲當。若言有者，於教爲當。理則爲實，教則爲權。在實雖無，敎門則有。今之所用有無作也。”

지의는 성무작가색이라는 특수한 개념을 사용하여 소승과는 다른 대승만의 계체론을 설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지의소』에서 논하는 유무의 존재성을 초월한 중도묘관의 성무작가색이다.⁴¹⁾

IV. 원효의 계체론—심법계체⁴²⁾

『원효기』는 삼취정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계의 존재성을 밝히고 있는 특징이 있다. 원효는 삼취정계의 삼덕목三德目的 구조에 의해 삼덕과三德果를 얻고, 그 삼덕과에 의해 정각보리과正覺菩提果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한다.⁴³⁾ 즉, 원효는 삼취정계의 구조에 의해 불보살의 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 작불作佛과 성불成佛도 또한 삼취정계의 지계에 의해 성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⁴⁴⁾ 이처럼 원효에게 있어 삼취정계는 『범망경』과 동일한 위치의 보살계이며, 그것을 지계하는 것을 불도수행의 근본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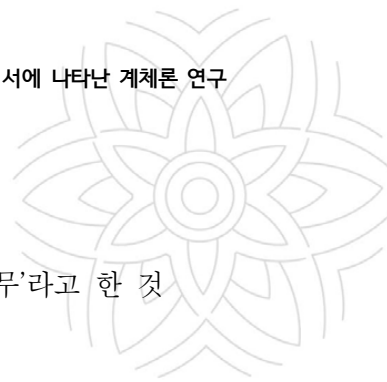
『범망경』은 마음인 불성을 정인正因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효는 ‘일

41) 법장(2020), 73.

42) 본 장은 법장(2017b)을 토대로 원효의 계체론을 파악한 내용임을 밝힘.

43) 『원효기』(X38, 277a05), “此三聚戒者，律儀戒者，爲斷德目，攝正法戒者，爲智德目，攝衆生戒者，爲恩德目。此三目故得成三德果。故言由此成正覺。合三德而爲正覺菩提果故。” “이 삼취계에서 율의계는 단斷의 덕목이고, 섭정법계는 지智의 덕목이며, 섭중생계는 은恩의 덕목이다. 이 삼덕목에 의해 삼덕과를 이룰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 정각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다. 세 가지의 덕을 합쳐 정각보리과라고 하는 것이다.”

44) 『원효기』(X38, 277b19), “汝是當作佛者，由持戒故，能有成佛之因故，因定果故，名當作佛。我是已成佛者，示我由三聚戒故既得成佛也。” “그대는 마땅히 부처가 된다作佛’는 것은, 지계에 의해 성불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이 결과를 정하여 마땅히 부처가 된다고 한 것이다. ‘나는 이미 부처가 되었다成佛’고 하는 것은, 내가 삼취계에 의해 이미 성불을 이룬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체유심자一切有心者'의 주석에 『열반경涅槃經』의 '일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과 '진여심·생멸심'의 이중심二種心을 사용하여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불성론을 논한다.⁴⁵⁾ 이 불성론의 설명에서 원효는 깨달음의 근본을 정인불성正因佛性인 마음(心)로 본다. 중생에게는 진여심이 본래 내재 되어있는 한편, 생멸심도 동시에 내재 되어 있기에 불성을 발견해 현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신심과 지계의 인因을 통해 생멸심을 제거하여 진여심을 현현시키지 않으면 성불의 과果에 이를 수 없다. 그리고 『범망경』은 심지계로서 불성인 마음으로부터 현현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지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계를 통해 계를 현현시켜야 한다. 이는 중생이 진여심만을 의지해 방일放逸에 빠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명으로, 지의가 '삼인불성三因佛性'에서 '이불성理佛性(정인)'의 현현을 위해 '행불성行佛性(료인了因, 연인緣因)'을 강조한 것과 같은 논리의 설명이다.⁴⁶⁾ 그리고 『원효기』에서는 계체에 대한 집착을 주의시키기 위해 비유비무非有非無의 설명에서 계체의 존재성을 인연에 의해 생기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비유비무’란 ‘계’가 양면을 떠난 중도인 것을 나타낸다. 계체를 논하면 인연에 따라서 생긴 것이다. 그러나 인연에서 ‘계’의 자성을 찾아도 얻을 수 없기에 ‘비유’라고 한다. 인연에 의해 생긴 ‘계’는 있는 것은 아

니지만 토끼 뿔이 없는 것과는 같지 않다. 그러므로 ‘비무’라고 한 것이다.⁴⁷⁾

‘계戒’란 제정인연에 의해 생겨난 것이기에 그 존재성은 어떠한 자성도 지니고 있지 않은 것이며, 유무를 떠난 중도의 상태이다. 그러나 이 계는 토끼 뿔(兎角)과 같이 처음부터 인연조차 없는 것은 아니다. 이 토끼 뿔의 비유는 원효의 또 다른 보살계 저서인 『요기』에서도 나오는 내용으로, 원효가 대승의 계체론에 있어 계의 자성을 부정함과 동시에 인연에 의해 성립되는 점을 강조할 때 사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의 유무를 분별해 집착한다면 양쪽 모두 잘못된 이해이며 계다가 계를 범하고 잃게 된다고 한다.⁴⁸⁾ 이처럼 『원효기』에서 논하는 ‘계’란 유무를 떠난 중도이며, 인연에 의해 성립된 묘유妙有의 상태이다. 그리고 이 계가 공덕의 의미로서 불과佛果를 생기게 하는 것이기에 깨달음의 과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계를 해야 한다.⁴⁹⁾ 즉, 원효에게 있어 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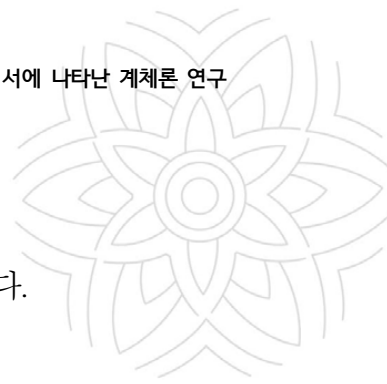
45) 『원효기』(X38. 277c03), “初言一切有心者, 論佛性正因. 謂如涅槃經云, 一切衆生凡有心者, 當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故. 凡有心者, 有二種心. 謂一者眞如心. …二者心生滅心. …衆生皆有如是二種心, 故名一切有心者.”
“처음에 말한 ‘일체유심자’란 불성이 정인인 것을 논한다. 『열반경』에서 “일체의 중생, 무릇 마음이 있는 것은 마땅히 아노다라삼막삼보리를 얻는다. 무릇 마음이 있는 것에는 이중심이 있다. 첫째는 진여심 … 둘째는 생멸심이다. … 중생에게는 모두 이와 같은 이중심이 있기에 ‘일체유심자’라고 이름한다”고 말한다.”

46) 지의의 삼인불성에 대해서는 법장(2020), 74-82를 참조.

47) 『원효기』(X38. 279b07), “非有非無者, 現戒離邊中道. 論戒體者, 從因緣生故. 推求於因緣戒自性, 不可得, 故非有. 從因緣生戒雖非有, 而不同於兔角無. 故言非無.”

48) 『원효기』(X38. 279b13), “大品經云, 罪不罪不可得故, 是名具之尸羅波羅蜜故. 若有人執非無門而爲有者, 雖戒不失, 而不知戒實相, 故即成犯. 若有人執非有門而爲計無者, 戒因果法誹機故, 即成失戒. 爲欲離此二邊, 契會中道. 故言非有非無也.”
“『대품경』에서 “죄와 죄가 아닌 것을 얻을 수 없기에 이를 시라바라밀을 갖추었다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한다. 만약 어떤 이가 계는 없는 것이 아니기에 있는 것이라고 집착한다면, 비록 계를 잃지는 않지만 계의 참된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계를 범한 것이 된다. 만약 어떤 이가 계는 있는 것이 아니기에 없다고 생각해 집착한다면, 계의 인과법을 어긴 것이기에 즉 계를 잃게 된다. 이 양면을 멀리하기 위해 중도에 합치한다. 그렇기에 ‘비유비무’라고 하는 것이다.”

49) 『원효기』(X38. 279b21), “能生佛果者, 是戒家中功德義. 能防非者, 是功德家中戒義. 是故戒家功德義, 方得能生佛果. 是因果義.”
“능히 불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계 속의 공덕의 의미이다. 능히 바르지 않음(非)을 막는 것은 공덕 속의 계의 의미이다. 이와 같이 계와 공덕의 의미가 바야흐로 능히 불과를 낳는 것이다. 이것이 인과의 의미이다.”



유무를 떠난 중도이며, 그 계체는 인연에 의해 생겨난 묘유의 상태로서 작용해 불과를 생기게 하는 것이다. 또한 원효는 이러한 『범망경』의 계는 체體를 종자種子로서 현현하지만 그 체에 가립假立한 것이 아니라 종자와 하나가 되어 체를 받치고 있는, 즉 본래 체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문기를, 종자 속에 바르지 않은 것(非)을 막는 의미가 ‘계’가 된다는 것은, 종자의 위에 가립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대답하길, 종자의 위에 가립한 것이 아니다. 체를 들어 종자가 되고, 또한 체를 들어 ‘계’가 된다. 문기를, 만약 그렇다면 ‘계’를 잃을 때 뒤에 생긴 종자도 또한 잃는 것인가. 대답하길, ‘체’가 다른 것이 아니기에 종자 속에서는 모두 멸하지만, ‘계’속에서는 종자가 ‘체’를 들고 있기에 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바닷물과 파도와 같이 본래 ‘체’가 다른 것이지만 바람이 그칠 때 파도는 멸하나 바닷물은 전혀 멸하지 않는 것과 같다.⁵⁰⁾

여기서 원효는 계의 연속성에 대하여 바닷물(水)과 파도(浪)의 비유를 들며, 파도를 일으키는 인연인 바람(風)이 그치면 그 파도도 전부 사라진다. 하지만 그 토대인 바닷물은 그대로인 것과 같다고 한다. 다시 말해, 『원효기』에서의 계는 어떠한 실체도 없는 단순한 가립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계체는 인연에 의해 생겨나 유무의 양면을 떠난 중도묘유中道妙有의 상태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그 체를 잃더라도 본래 체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

50) 『원효기』(X38. 279b24), “問, 種子家中防非義爲戒者, 種子以上假立耶, 不爾. 答, 種子上不假立. 舉體爲種子, 亦舉體爲戒. 問, 若爾者, 失戒時生後種子亦失耶. 答, 雖體無異, 而種子家中戒門全滅, 戒家種子門舉體不滅. 譬如水與浪, 雖元異體, 而風息時, 浪門以全滅, 而水門者全不滅.”

기에 계는 영원히 존속하는 일득영불실一得永不失인 것이다.

V. 현수법장의 계체론- 비색비심

『법장소』의 시본행示本行에서는 계란 일체제불의 본원이며 보살도의 근본이라고 정의하고, 만약 이 계법이 없다면 단 한 명의 보살도 성불에 이를 수 없다고 논한다.⁵¹⁾ 그렇기에 보살이 만약 이 계를 버린다면 어떤 수행을 하였더라도 그것은 짐승(禽獸)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여 보살의 수행에서의 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⁵²⁾ 즉 법장에게 있어 계는 대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의 근본이며, 성불에 이르기 위한 절대조건이다. 따라서 보살이 지계를 하지 않거나 계를 버렸다면 보살로서의 자격을 잃은 것이 되어 결코 성불할 수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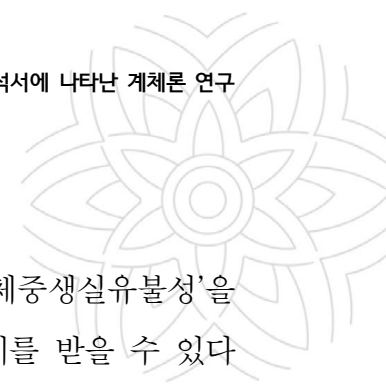
다음으로 법장은 “십계의 하나하나가 모두 삼취정계를 갖춘다”⁵³⁾고 하여, 『범망경』의 십중계가 삼취정계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삼취정계에 대해 보살의 바라밀행은 모두 삼취정계를 구족하고 있으며, 삼취정계에

51) 『법장소』(T40, 602c07), “一切諸佛之本源, 行菩薩道之根本. 又云, 一切菩薩已學今學當學. 解云, 若無此戒法無一菩薩得成佛道.”

“일체제불의 본원이며 보살도를 행하는 근본이다. 다시 말하길 “일체보살이 이미 배웠고, 지금 배우며, 마땅히 배울 것”이라고 한다. 해석하면, 만약 이 계법이 없다면 한 명의 보살도 불도를 이룰 수 없다.”

52) 『법장소』(T40, 602c13), “智論十三云, 譬如無足欲行, 無翅欲飛, 無船求渡, 是不可得. 若無戒欲求好果, 亦復如是, 若人棄捨此戒, 雖居山苦行食果服藥, 與禽獸無異.”
“『대지도론』권13에서 말하길 “예를 들어 밭없이 가려고 하거나, 날개없이 날려고 하거나, 배없이 건너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만약 계없이 좋은 결과를 구하려는 것도 또한 이러한 것으로 만일 사람이 이 계를 버렸다면 산에 살면서 고행하고 과일만을 먹고 (불로불사의) 약을 복용하였다 하더라도 금수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라고 한다.”

53) 『법장소』(T40. 609c09), “是故十戒一一皆具三聚.”



의해 회향심廻向心을 일으키게 되기에 보살만행菩薩萬行의 근본(宗)이라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모든 보살의 바라밀행은 삼취정계를 구축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른바 삼취정계의 마음을 일으켜 세 가지의 행(계·정·혜)을 닦아 세 가지 회향(보리·중생·실제)을 성취한다. 보살의 만행에 이것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 그렇기에 근본(宗)이라고 한다. 54)

이같이 법장은 삼취정계로 인해 보살이 보리심을 일으켜 서원을 성취하고 불과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이는 『범망경』의 계체가 발심에 의해 현현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법장은 불성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당래當來에 성불할 수 있으며, 이 믿음에 의해 보리심을 발현하게 되고, 또한 그 보리심의 마음에 의해 계를 얻는 것이라고 한다.

자신에게 불성의 법이 있는 것을 믿기에 이것은 곧 반드시 당래에 성불한다는 의미이다. ... 이 믿음을 일으키면 곧 진리에 들어가는 보리심을 일으키게 된다. 이 때문에 이 마음이 곧 계를 얻는다. 그렇기에 『무구칭경』에서 “보리심을 일으키면 즉 이것이 출가이며, 이것이 바로 비구의 성품을 구축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한다. 55)

54) 『법장소』(T40, 604b05), “諸菩薩波羅密行莫不具足三聚. 所謂發三聚心, 修三種行, 成三廻向. 菩薩萬行莫過於此. 故以爲宗.”

55) 『법장소』(T40, 607a08), “謂信己身有佛性法故, 即是定當來成佛之義. ...起此信即是發入理菩提心. 此故此心即是得戒. 故無垢稱經云, 發菩提心即是出家.”

그리고 『범망경』의 수계자에 대한 설명에서 ‘일체중생실유불성’을 인용해 마음이 있는 자라면 누구라도 불성이 있기에 계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즉 계는 불성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고, 불성은 마음이기 때문에 『범망경』의 계체는 바로 마음(心)인 것이다.

무릇 모든 마음이 있는 이는 모두 불성이 있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보살도의 그릇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불계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앞에서 ‘당래에 이를 부처’라고 한 것은 불성의 체에 의한 것이다. 여기서 “마음이 있는 이는 모두 불계를 받는다”고 한 것은 불성의 작용을 밝힌 것이다.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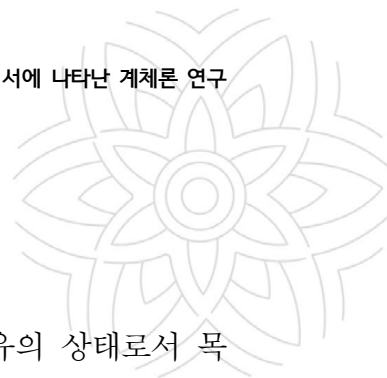
그러나 법장은 ‘계’의 자성에 대해, ‘계’는 인연에 의해 성립된 무자성의 상태이기에 본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인연이 없으면 없는 것이 된다고 한다. 57) 즉, ‘계’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묘유의 상태인 것이다. 이러한 ‘계’의 존재성에 대해 법장은 원효와 동일하게 토끼 뿔(兎角)의 비유를 사용해, ‘계’란 유무의 양변을 떠난 상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유무를 떠난다’는 것은, 연기의 계는 즉 자상이 없는 것을 말한다. 연

56) 『법장소』(T40, 607a16), “凡諸有心皆有佛性. 有佛性故堪爲道器. 故云攝佛戒也. 又前是當成之佛, 據佛性體也. 此明有心之者皆攝佛戒, 是佛性用也.”

57) 『법장소』(T40, 607c19), “明戒無自性起藉因緣. 謂此戒法既從因緣必無自性. 無自性戒名爲戒光. 以佛說爲緣, 機感爲因. 或師授爲緣, 菩提心爲因, 無自性戒方得發起. 故云有緣非無因也.”

“계는 무자성으로 인연에 의해 일어나는 것을 밝힌다. 이 계법은 이미 인연을 따르고 있기에 반드시 자성이 없는 것이다. 무자성의 계를 이름하여 ‘계광’이라고 한다. 부처님의 말씀을 연으로 하고 근기의 감응을 인으로 한다. 혹은 스승의 가르침을 연으로 하고 보리심을 인으로 하여 무자성의 계가 비로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유연비무인(연이 있고 인이 없지 않다)’이라고 하는 것이다.”



에 즉하면 계가 아니고, 연을 떠나면 계는 없다. ‘즉’과 ‘리’를 제외하고 중간을 얻을 수 없다. 이처럼 계를 구해도 영원히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없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계는 토끼 뿔과 같이 인연조차 없는 것과는 같지 않다. 이 때문에 이 계는 유무를 모두 끊었다. 또한 집착하는 것이 아니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연을 따라서 일어나기에 없는 것이 아니다. 또한 연을 따라 일어나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기에 없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비유비무’라고 하는 것이다.⁵⁸⁾

이 설명에 의하면 ‘계’는 토끼 뿔과 같이 처음부터 성립 인연조차 없는 것이 아니라 보리심의 발심에 의해 인연과 만나 현현하여 수계자를 열반(깨달음)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법장은 계체에 대하여 발심과 서원이 계의 토대이기에, 계는 생각(思)의 종자를 ‘체’로 하는 비색(非色)의 계체이다. 그러나 이 ‘계’는 ‘체’인 생각의 종자에 가립하고 있는 것이기에 또한 비심(非心)의 계체이기도 하다고 설명한다.

‘색심을 떠난다’는 것은, 이 참다운 계의 성품은 질애도 아니고 또한 연려도 아니다. 때문에 ‘비색심(색심이 아니다)’이라고 한 것이다. 다시 해석하면, 계는 생각의 종자에 건립하기에 생각의 종자를 ‘체’로 삼는다. 그렇기에 청색 등의 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생각의 종자 위에 가립하여 색을 삼는다. 때문에 ‘비심(마음이 아니다)’이라고 하는 것이다.⁵⁹⁾

58) 『법장소』(T40, 608a01), “離有無者, 謂緣起之戒便無自相。即緣非戒, 離緣無戒。除即除離不得中間。如是求戒永不是有無。然此不無此不有之戒, 以不同菟角無因緣故, 是故此戒俱絕有無。又可非所執故不有, 從緣起故非無。又從緣起故不有, 非所執故不無。故云非有非無也。”

59) 『법장소』(T40, 607c26), “離色心者, 謂此眞戒性非質礙, 又非緣慮。故云非色心。又釋, 戒於思種而建立, 故用思種爲體。故云非青等色也。於思種上假立爲色。故云非心也。”

그리고 인연에 의해 생겨난 ‘계’는 유무를 떠난 묘유의 상태로서 목숨이 다해 몸은 멸하더라도 계체는 사라지지 않는 ‘일득영불실’이라고 설명한다.⁶⁰⁾ 이처럼 『법장소』에서 논하고 있는 보살계는 불성계이면서도 발심과 서원을 토대로 하는 ‘비색비심’의 계체론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 ‘계’는 인연에 의해 생겨난 묘유의 상태로 마음에 가립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⁶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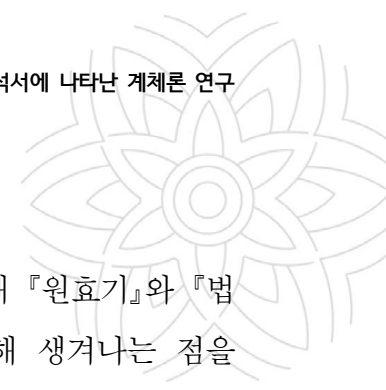
VI. 결론

이상의 내용과 같이 『범망경』의 계체론을 대표하는 『지의소』의 ‘성무작가색’, 『원호기』의 ‘심법계체’, 『법장소』의 ‘비색비심’을 확인하였다. 이 세 종류의 계체론은 주석가의 계율관에 의해 각각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60) 『법장소』(T40, 612c23), “若依小乘, 不犯夷。以彼未命終, 未成罪故。命終已後, 戒已失故。菩薩戒既經生不失, 故還得夷。”

“만약 소승에 의하면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죽임을 당하는) 그의 목숨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아직 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죽인 사람의) 목숨이 이미 끝난 뒤에는 이미 계를 잃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살계는 이미 목숨이 끝났어도 (계를) 잃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바라이죄를 얻는 것이다.”

61) 법장의 계체나 기근에 대해 吉津宜英(1991), 622-623, 에서 요시즈는 “다른 사람들이 기근의 면에서는 대부분 보살로 한정하고 있으나, 법장은 일체중생이라는 범위까지 넓히고 있는 것도 특색의 하나일 것이다. ... ‘누구라도의 계율(誰でもの戒律)’은 매우 실천 타협의 자세가 되기 쉽기에 사분율종의 사람들로부터는 물론 허용될 수 없고, 내용을 중시하는 승장이나 천태로부터도 비판받았을 것이다. ... 본소는 한편으로 ‘누구라도의 계율’로서 넓은 자세를 보이면서도, 다른 면에서는 불성계로 매우 한정시키고 있다”라고 하여, 『본소』에 일체중생의 수계와 더불어 불성계라는 이면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한편 石井公成(1984), 401, “법장은 계체에 대해서 설명할 때 비색비심과 함께 종자계체설을 말하는 등 도선의 설을 따르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라고 하여, 법장이 계체에 대해서 두 종류의 설을 말하고 있다고 하며 그것은 남산 도선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지의소』는 ‘성무작가색’이라는 무표색에 의한 계체론을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지의소』의 계체론을 ‘색법계체’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지의소』에서 논하는 계체는 ‘가색’이라고 표현하듯이 소승과는 다른 대승만의 계체인 것이다. 그것은 진실(實)로서는 ‘심법계체’이지만, 『범망경』의 유통과 보급 등의 교문敎門적 성격을 중시한 권교방편으로서의 색법계체를 나타낸 것이다. 즉, 『지의소』의 ‘성무작가색’이라는 계체론은 심법계체를 토대로 한 방편으로서의 색법계체이며, 그 존재성은 유무를 떠난 ‘중도묘관中道妙觀’의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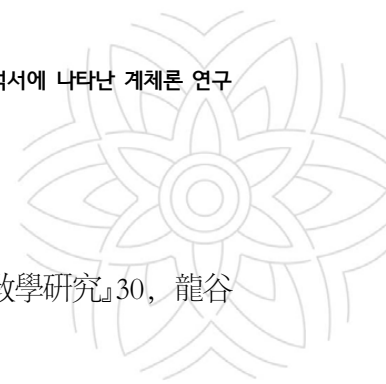
『원효기』는 ‘일체중생실유불성’과 ‘진여심·생멸심’의 2중심을 사용해 불성을 중심으로 한 ‘심법계체’를 나타낸다. 특히 계체의 존재성에 대하여 토끼 뿔의 비유를 통해 인연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며, 그로 인해 계체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것이라고 설명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그 계체는 파도가 사라졌어도 그 토대인 바닷물은 그대로 남는다는 바닷물과 파도의 예시와 같이 몸(身)이라고 하는 토대(體)가 멀하여 없어졌어도 불성인 마음(心)은 그대로 존재하기에 한 번 수계를 받으면 영원히 존속된다는 ‘일득영불실’이라고 설명한다.

『법장소』는 사思의 종자를 계체로 하는 ‘비색’이며, 또한 사의 종자에 가립해 있는 ‘비심’이기도 하다는 ‘비색비심’을 나타낸다. 그 존재성에 대해서는 원효와 동일하게 토끼 뿔의 비유를 사용해 인연에 의해 성립된 무자성의 상태이기에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인연이 사라지면 없는 것이 된다고 논한다. 그리고 유무를 떠난 묘유의 상태이기에 비록 목숨이 다하더라도 계체는 사라지지 않는 ‘일득영불실’이라고 설명한다.

이같이 『지의소』, 『원효기』, 『법장소』에 나타난 계체론은 불성인 마음을 토대로 하며, 그 존재성은 인연에 의해 생겨난 유무를 떠난 것이라

고 보는 공통된 견해가 있다. 게다가 이러한 점에 더해 『원효기』와 『법장소』는 동일하게 토끼 뿔의 비유를 들어 인연에 의해 생겨나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일득영불실’의 설명에서 『원효기』는 ‘계’를 체體에 가립한 것이 아니라 종자인 마음과 하나 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법장소』는 그 종자를 ‘체’로 삼는 것은 인정하지만, 『원효기』와는 다르게 가립한 것이라고 하여 ‘계’와 그 ‘체’의 관계성에 대해 다른 견해를 보인다. 『지의소』는 ‘성무작가색’이라는 독특한 계체론을 보이지만, 그것은 방편의 가색으로서 진실로는 심법계체의 중도묘관의 계체론인 것이다.

이러한 『범망경』을 둘러싼 다양한 계체론의 발전은 후대의 의적, 태현 등으로 넘어가며 삼취정계와 더욱 긴밀한 형태로 융합되며 『범망경』이 보다 대승적인 형태로 주석되어 동아시아 대승보살계를 대표하는 경전이 되는데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참고문헌]

약호

T 대정신수대장경

X 卍續藏經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T24)

『菩薩瓔珞本業經』(T24)

『菩薩戒義疏』(T40)

『梵網經菩薩戒本私記』(X38)

『菩薩戒本持犯要記』(T45)

『梵網經菩薩戒本疏』(T40)

최원식(1999), 『신라보살계사상사연구』, 서울: 민족사.

吉津宜英(1991), 『華嚴一乘思想の研究』, 東京: 大東出版社.

법장(2017a), 「元曉의 『梵網經』註釋書と法藏의 『梵網經菩薩戒本疏』의比較研究」, 『禪學研究』95, 禪學研究會.

_____(2017b), 「원효의 『범망경』주석서와 천태지의의 『보살계의소』의 비교연구」, 『한국불교학』82, 한국불교학회.

_____(2020), 「지의의 『보살계의소』의 계체론에 대하여」, 『불교학리뷰』27,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大野法道(1958), 「戒體論」, 『南都佛教』5, 南都佛教研究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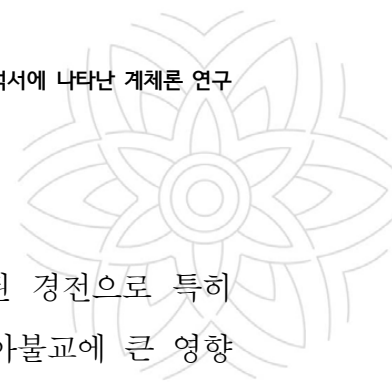
小寺文穎(1973), 「天台戒疏の成立に關する一考察」, 『佛教學研究』30, 龍谷大學佛教學會.

平川彰(1976), 「智顗の戒體論について」, 『佛教思想論集: 奥田慈應先生喜壽記念』, 平樂寺書店.

石井公成(1984), 「法藏の『梵網經菩薩戒本疏』について」, 『印度哲學佛教學』32-2, 日本印度哲學佛教學會.

_____(1997), 「智顗における聲聞戒と菩薩戒」, 『天台大師研究: 天台大師千四百年御遠忌記念』, 天台學會.

北塔光昇(2008), 「菩薩戒義疏における戒體說について」, 『印度哲學佛教學』23, 日本印度哲學佛教學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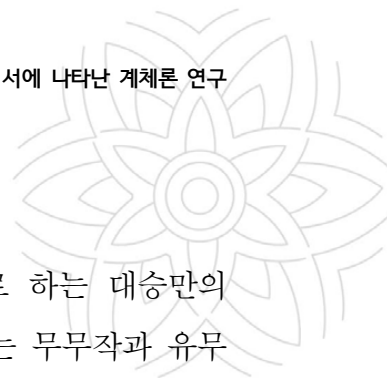
논평 -1 「『범망경』 주석서에 나타난 계체론 연구」를 읽고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HK 교수)

-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에서 학사·석사를 졸업하였고, 일본 도쿄(東京)대학에서 「초기불교교단의 연구 - 승단의 분열과 부파의 성립 -」으로 문학박사 학위 취득.
- 현재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K 교수로 재직 중.
- 저서 및 논문으로는, 「승가화합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초기불교승가의 소유와 분배」 등 50여 편의 율장 관련 논문을 저술하였고, 저서로는 「나를 일깨우는 계율 이야기」, 「붓다와 39인의 제자」, 「율장의 이념과 한국불교의 정향」 등이 있음.
- 수상 내력으로는 2015년에 불이상, 2018년에 반야학술상 등을 수상하였음.

1. 『범망경』은 5세기 중후반경에 중국에서 찬술된 경전으로 특히 하권에서 설하는 10중 48경계가 계율사적으로 동아시아불교에 큰 영향을 미치며,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서도 많은 주석서가 지어졌다. 본 논문은 이 중 6~8세기경에 작성된 초기의 주석서인 지의의 『보살계의소』, 원효의 『범망경보살계본사기』, 법장의 『범망경보살계본소』를 중심으로 『범망경』의 계체론에 대한 각 주석의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 수계의식을 받은 자가 이후 신구의身口意의 삼업을 다스리며 육근六根을 지켜 방비지악防非止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계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인도불교에서도 부파 간 논쟁이 있었던 문제이다. 중국불교에서는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범망경』 주석인 지의의 『보살계의소』에서 인도의 무표無表 논쟁을 처음 중국에 소개하면서 이후 본격적인 계체 논의를 통해 계학의 상相을 밝히기 위한 주요한 주제로 정착되어 온 것 같다. 법장스님(이하 논자로 표기)은 심지계인 범망계를 주석하며 중국과 한국의 승려들이 ‘성무작가색性無作假色’, ‘심법계체心法戒體’, ‘비색비심非色非心’으로 서로 다른 계체론을 설하는 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과정 및 원인, 그리고 각 주석 간의 상호 영향 관계 등에 대해 논한다는 목적을 갖고 본 논문을 작성하고 있다. 본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논지에 필자도 동의하며, 이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형태로 논평자에게 주어진 소임을 대신하고자 한다.

2. 본고는 2장에서 관련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3장~5장에서 각각 지의, 원효, 법장의 주석에 보이는 계체론을 논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2장에서는 먼저 『지의소』에 나오는 ‘성무작가색’이라는 용어에 대한 일본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을 제시한다. 이들 선행연구를 보면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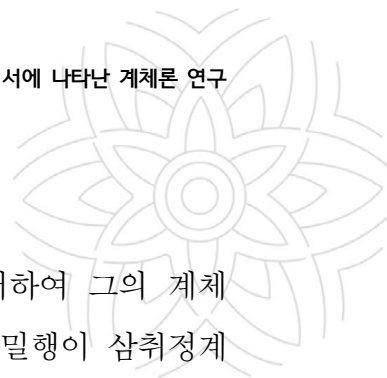


의소』에서는 성무작가색이라고 하여 색법계체가 나타나지만, 지의의 다른 저서에서는 심법계체가 나타나고 있어,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지의의 계체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기존에 주로 다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본고 역시 이 점에 주목하여 양자의 회통적 해석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효와 법장의 경우에는 주로 양자의 계율관의 관계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원효기』와 『법장소』의 계체론에 대한 현재까지의 선행연구가 극히 적기에”라며 논자가 밝히고 있듯이,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원효와 법장의 상호 영향 관계에 초점을 두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보아 지금까지 주로 계체론은 지의의 저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지의소나 그의 저작들을 중심으로 계체론 연구가 이루어져 온 이유에 대해 부연 설명해 주면 좋겠다. 또한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계체’라는 용어에 해당하는 원어는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중국불교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일 것(물론 無表 등 계체에 해당하는 개념은 있다)이라는 추정이 가능한데, 이 점과 관련하여 중국불교에서 계체라는 용어가 사용되게 된 배경이나 이유 등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3. 제3장에서는 지의의 계체론을 분석하고 있다. 『보살계의소』 삼중현의 ‘출체出體’에 보이는 “初戒體者 不起而已 起即性無作假色”라는 문장에 근거하여 지의의 계체론을 기존에 색법계체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논자는 ‘가색’이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이는 단순한 색법이 아닌 대승만의 묘법의 가색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지의가 『대지도론』에 나오는 십중계를 활용하여 대승과 소승의 계율을 분류할 때 범망계를 제 10구족계 ‘중도제일의제계’에 배당하였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지의가 대

승의 색법계체를 단지 물질이 아닌 중도묘관을 본체로 하는 대승만의 중도제일의제계로 보고 있다고 한다. 『지의소』에 보이는 무무작과 유무작에 대한 기술로 보아 지의가 계체를 마음을 토대로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논자의 주장에는 대부분 동의한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무작가색’의 ‘가색’이라는 용어에서 지의가 ‘가’라는 말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하는 점이다. 색법계체의 완전한 혹은 일정 부분의 금지를 의도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이 용어(가색)는 지의가 계체와 관련하여 처음 사용했는지 혹은 기존에 다른 경전에서 사용되고 있던 것을 받아들인 것인지, 받아들였다면 의미 변화는 있는지 궁금하다.

4. 제4장에서는 원효의 계체론을 논하고 있다. 『범망경』은 마음인 불성을 정인正因으로 하는데, 원효가 ‘일체유심자’의 주석에 『열반경』의 ‘일체중생실유불성’과 ‘진여심·생멸심’의 이중심을 사용하여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불성론을 논할 때 깨달음의 근본을 정인불성인 마음으로 본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의 계체론이 불성을 중심으로 한 심법계체임을 주장한다. 특히 원효가 계체의 존재를 토끼 뿔에 비유하여 인연에 의해 생겨나는 것으로 보아 계체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비유비무로 설명하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하여 『사기』의 “‘비유비무’란 ‘계’가 양변을 떠난 중도인 것을 나타낸다. ... 그러므로 ‘비무’라고 한 것이다.”라는 구절을 인용하고, “『원효기』에서 논하는 ‘계’란 유무를 떠난 중도이며, 인연에 의해 성립된 묘유의 상태이다.”라고 원효의 계체론이 인연에 의해 생겨난 묘유의 상태로 작용하여 불과를 낳는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나아가 계체는 파도가 사라져도 그 토대인 바닷물은 남는다는 예를



들어 몸이라는 토대가 사라져도 불성인 마음은 존재하기 때문에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존속한다는 ‘일득영불실’로 설명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본고에서 지적하는 여러 사례로 볼 때 원효의 계체론을 심법계체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기존의 연구 중에는 원효의 계체론을 비색비심계체로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켄메이(胡建明)는 2019년에 발표한 「『梵網經』における戒體說と孝順說について」라는 논문에서 『사기』의 “非色非心者 以防非止惡義爲戒故 此戒者 雖從色生 而非爲色 雖從心生 而非爲心 故言非色非心 …” (비색비심이란 그릇된 것을 막고 악을 그치는 뜻을 계로 삼기 때문이다. 이 계는 비록 색으로부터 생겨난다 해도 색이라 하지 않으며, 비록 마음으로부터 생겨난다 해도 마음이라고 하지 않으므로 ‘색도 아니고 심도 아니며’라고 한다.)라는 구절에 근거하여 원효가 반야공사상에서 설하는 ‘불가득不可得’의 공성을 가지고 색심불이, 일미의 계체설을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요기』의 “故曰非無因 非無因戒性 非質礙 亦非緣慮 故曰非色非心 雖非色心 而離色心 永不可得 雖不可得 而非無戒 故曰非有非無” (그러므로 [계는] 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인이 없는 계성도 아니므로 질애도 아니고 사려도 아니기 때문에 색도 아니고 심도 아니라고 말한다. 색과 심이 아니니 색과 심을 떠나 영원히 얻을 수 없으며, 얻을 수 없다 해도 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구절에 근거하여 원효의 계체가 비색비심계체라고 하며 선종의 육조 혜능(638~713)이 설한 무상계無相戒에 가까운 것은 아닐까 추정한다. 그리고 나아가 법장이 이러한 원효의 주석을 계승하여 비색비심계체설을 주장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위의 구절을 보면 원효의 계체론이 비색비심에 가까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점에 대해 논자의 설명을 청한다.

5. 제5장에서는 법장의 『범망경보살계본소』에 근거하여 그의 계체론을 고찰하고 있다. 논자는 법장이 모든 보살의 바라밀행이 삼취정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하여, 삼취정계로 인해 보살이 보리심을 일으켜 서원을 성취하고 불과에 이르게 된다고 보고 있다는 점, 불성에 의해 계가 생겨나는데 불성은 마음이기 때문에 『범망경』의 계체 역시 마음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 원효와 마찬가지로 법장 역시 계는 토끼 뿔처럼 처음부터 성립 인연조차 없는 것은 아니며 보리심의 발심으로 인연과 만나 현현하여 수계자를 열반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본다는 점 등을 지적한다. 그리고 계체에 대해서는 발심과 서원이 계의 토대이기에 계는 생각의 종자를 체로 하는 비색의 계체이지만, 이 계는 체인 생각의 종자에 가립하고 있는 것이기에 또한 비심의 계체이기도 하다고 하여 법장의 계체론이 비색비심이라고 한다.

논자의 주장에 따르면, 원효는 심법계체를 법장은 비색비심계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토끼 뿔처럼 법장이 원효의 계체 설명과 유사한 면을 보이면서도 계체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보충 설명을 바란다.

또한 법장 이후 『범망경』 주석가들이 계체론에서 보여준 주된 해석은 색법, 심법, 비색비심 중 어떤 것이었는지, 왜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도 궁금하다.

논평 - 2 「『범망경』 주석서에 나타난 계체론 연구」를 읽고

고승학 (금강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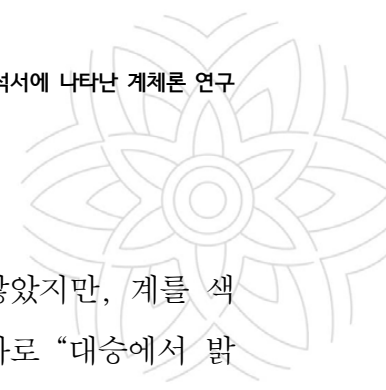
-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 이후 미국 UCLA 에서 「Li Tongxuan's (635-730) Thought and His Place in the Huayan Tradition of Chinese Buddhism」 (2011) 로 박사학위를 취득.
- 동국대, 능인대학원대학교를 거쳐 2017 년부터 금강대학교 불교인문학부 교수로 재직 중.
- 저·역서와 논문으로는 공저로 「다원주의의 철학적 관점」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테마 한국불교」 I-III (동국대 학교출판부, 2012-2015) 등이 있고, 공역서로 『Ilseung beopgye-do Wontong-gi: Master Gyunyeo's Commentary on the Dharma Realm Diagram of the One Vehicle』 (Dongguk University Press, 2013), 『동아시아한국불교사료 : 중국문헌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4) 등이 있다.

본 논문은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승보살계를 대표하는 『범망경』을 중심으로 천태지의天台智顗(538-597), 원효元曉(617-686), 현수법장賢首法藏(643-712)의 계체론戒體論을 본문의 3개 장에서 다루고 있다. (나머지 3개의 장은 서론, 선행연구 검토, 그리고 결론에 해당된다.)

논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본 경전의 갖춰진 명칭인 ‘범망경노 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제십’의 ‘심지계心地戒’라는 말로부터 주석가들이 당연히 이 대승계의 본질(體)을 심心에서 찾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천태지의 등 동아시아의 대표적 교학사상가 3인은 모두 자기만의 독특한 계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논자는 그들의 이론을 비교하여 “계체론이 변천된 과정과 원인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함을 I장인 서론에서 밝히고 있다.

II장에서는 오노 호도(大野法道), 고테라 분에이(小寺文穎), 히라카와 아키라(平川彰), 요시즈 요시히데(吉津宜英) 등 일본 학자들의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있다.

논자는 우선 오노와 고테라의 연구에 대하여 지의가 3대부(『법화현의』, 『법화문구』, 『마하지관』)에서 대승계의 본질을 심心으로 본 것과 달리 『보살계의소』(『지의소』)에서는 ‘무작無作’, ‘가색假色’ 등의 상이한 용어를 도입한 이유에 대하여 해명하려 시도하였으나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한다. 곧 오노는 지의가 사용한 ‘무작의 가색’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천태원교天台圓敎의 ‘본구本具’, ‘성덕性德’ 등의 틀 안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스스로 원교의 개념만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하여 유보적이었음을 논자는 지적한다. 고테라의 경우에는 ‘무작’이 지의 자신의 『원돈지관』에 연유하고, ‘가색’ 개념도 천태가들이 중시하는 『대지도론』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이치에 의해 권증權證의 방편으로 색법계체가 설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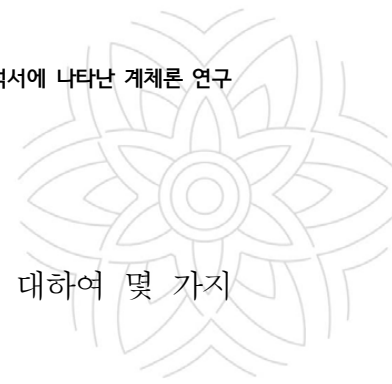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 논자는 이 역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 같다. 논자는 히라카와에 대해서도 지의가 주장한 색법으로서의 계체론이 그가 유부有部の 텍스트인 『십송률』을 통해 수계하였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힌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그에 대한 반론이 기타즈카 미쓰노리(北塔光昇)에 제기되었음을 밝힌다. 논자는 이어 법장과 원효의 『범망경』 주석을 비교 고찰한 요시즈의 연구에 대해서는 그가 두 학승의 입장 차이를 『화엄경』 내지 일승과 삼승의 문제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보았음을 언급한다.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에 이어 논자는 본격적으로 『범망경』 보살계에 대한 지의, 원효, 법장의 계체론을 다룬다. 먼저 III장에서 논자는 지의의 『보살계의소』에 나오는 “계체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대로이며, 일어난다면 성 무작의 가색이다[戒體者, 不起而已. 起即, 性無作假色: 각주 26]”라는 문장만으로는 지의가 계체를 색법으로 보았다고 결론 내릴 수 없고, 그가 『대지도론』을 인용하여 설명한 10종계 중 구족계와 이 보살계를 동일시하면서 언급한 “이것은 중도 제일의제계를 지닌 것이다[此是持中道第一義諦戒也]”라는 문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논자는 이어 지의의 ‘무작無作’을 색법의 하나인 ‘무표색無表色’과 동일시하면서도, 이러한 무작을 갖추지 않은[無無作], 심법을 계체로 삼는 『영락경』 등도 대승계의 ‘한 번 수계를 받으면 영원히 계를 잃지 않는다[一得永不失]’는 개념에 영향을 주었음을 지적한다. 나아가 논자는 지의가 무작을 갖추고 있는[有無作] 대·소승의 경론 역시 모두 ‘마음의 힘의 뛰어난 작용’에 의해 그러한 무작의 계체가 생겨남을 밝힌다[心力巨大, 能生種種諸法, 能牽果報. 小乘明, 此別有一善, 能制定佛法. 憑師受發, 極至盡形. 或依定依道品別生. 皆以心力勝用, 有此感發: 각주 34]고 보았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이와 같이 지의는

계체를 색법과 심법 중 양자택일식으로 단정 짓지는 않았지만, 계를 색취色聚와 동일시한 비담가毘曇家の 학설을 소개하고 곧바로 “대승에서 밝힌 계는 색법이다[大乘所明戒是色法: 각주 36]”라는 선언과 『대지도론』을 인용한 문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그의 이론은 ‘색법 계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논자는 이것은 “중도묘관을 본체로 하는 대승만의 중도제일의제계”라는 점에서 소승계와 구별됨을 강조하고, 지의가 『보살지지경』 「지지계품」을 인용하여 대승에서는 보리심의 서원誓願을 유지하는 한 중죄를 저질러도 계를 상실하지 않으며, 그것은 무작이 없지 않기 때문[地持戒品云, 下軟心犯後四重不失律儀, 增上心犯則失律儀. 若不捨菩提願, 不增上心犯, 亦不失律儀. 若都無無作, 何得言失: 각주 39]이라고 역설한 부분을 인용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의 계체론이 ‘무작의 색법’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논자는 나아가 무작이 있음[有無作]을 강조하는 이러한 지의의 계체론(“심법계체를 토대로 하는, 방편으로서의 색법계체”)은 이치로서의 실교實教가 아닌, 교리로서의 권교權教, 곧 방편의 관점이고 이는 그가 『범망경』을 교문教門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논자는 다음으로 IV장에서 원효의 계체론을 다루는데, 그가 이불성理佛性, 곧 정인불성正因佛性인 마음을 중시하였기에 계체 역시 심법으로 보았다고 논증하고 있다. 그러나 원효는 이러한 심법으로서의 계를 비유비무非有非無로 봄으로써 중도를 추구하였고 그러면서도 불성을 과果로서 현실화하기 위한 행불성行佛性의 작용, 곧 수계가 필요함을 강조한 점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논자에 따르면, 원효는 『범망경』의 계가 인연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의 본질[體]은 종자위에 가립假立한 것이 아니기에 “실제로 존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 논자는 범장이 계를 보살 수행의 “절대조건”으로 보았고, 『범망경』의 십중계를 삼취정계로 정의하였음을 보인다. 논자에 따르면 범장은 보살의 보리심과 불성에 의해 보살계가 발생한다고 전제하고, “불성은 마음이기 때문에 『범망경』의 계체는 바로 마음[心]”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 역시 원효와 비슷한 논법을 동원하여 계체를 인연에 의해 성립한, 유무有無의 두 극단[兩邊]을 떠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 논리를 확대하여 범장은 계는 발심과 서원이라는 생각의 종자를 본체로 한다는 점에서는 비색非色이지만, 생각의 종자에 단지 ‘가립’한 것이기에 비심非心이기도 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을 논자는 지적한다.

이와 같이 세 학승의 『범망경』 계체론을 검토한 후 논자는 VI장 결론 부분에서 그들 모두 계의 “존재성은 인연에 의해 생겨난, 유무를 떠난 것이라고 보는” 공통점이 있으나, 범장과 원효는 계가 마음의 종자에 대해서 가립한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갈리고 지의는 계체를 “방편의 가색”과 “진실의 심법”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다시 이들과 구분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논문을 맺고 있다.

이상 본 논문을 평자가 이해하는 범위에서 요약해 보았는데, 『범망경』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지의, 범장 등이 천태와 화엄 등 특정 종파를 대표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교판 중심으로 계체론을 다룬 것과 달리 해당 주석가의 문장 그 자체를 꼼꼼히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분야 연구자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평자는 관련 분야 전공자가 아니므로 『범망경』이나 계체론과 관련한 직접적 논평은 생략하고,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경문 번역의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1. II장에서 소개한 일본 불교학자들의 기존 연구와 어떤 점에서 논자의 연구가 차별화되는지 다소 불분명하다. 특히 지의의 계체론이 경론을 전거로 하여 성립되었다는 기타즈카의 주장과 그것이 교리로서의 권교의 관점에 의거한 것이라는 논자의 주장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논자는 서론에서 “계체론이 변천된 과정과 원인을 고찰”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계체론의 변천 과정은 본 논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소 불분명하다.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이하의 세 가지 질문은 논문에 인용된 한문 문장들의 번역이나 인용과 관련된 것들임.

3. 각주 36번

大乘所明戒是色法. 大論(問)云, (戒是色法可論) 多少思是心數. 云何言多少耶. 觀論意, 以戒是色即問, 此是數義. 大乘云何而用數義. 解云, 若用非色非心, 復同成實, 還是小乘. 今言數自家是數色. 大乘色何關數家.

번역문: ... 『대지도론』에서 “계는 색법이지만 다소의 사람들은 심수라고 생각한다. 어째서 다소라고 하는가?”라고 말한다. ...



★ 실제 『대지도론』의 문장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위의 번역문의 따옴표 위치의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大智度論》卷81 〈六度相攝品 68〉：「復次，忍辱是心數法，持戒是色法。持戒名心生、口說、受持；忍辱但是心生，非受持法」(CBETA, T25, no. 1509, p. 628, c24-26)

4. 각주 48번

《梵網經菩薩戒本私記》卷1：「是故大品經云。罪不罪不可得故。是名具之(足?)尸羅波羅蜜故。若有人執非無門而為有者。雖戒不失。而不知戒實相。故即成犯。若有人執非有門而為計無者。戒因果法誑機故。即成失戒。為欲離此二邊。契會中道。故言非有非無也」(CBETA, X38, no. 683, p. 279, b13-17 // Z 1:95, p. 113, a7-11 // R95, p. 225, a7-11)

번역문: 『대품경』에서 “죄와 죄가 아닌 것을 얻을 수 없기에 이를 시라바라밀을 갖추었다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한다. 만약 어떤 이가 계는 없는 것이 아니기에 있는 것이라고 집착한다면, 비록 계를 잃지는 않지만 계의 참된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계를 범한 것이 된다. 만약 어떤 이가 계는 있는 것이 아니기에 없다고 생각해 집착한다면, 계의 인과법을 어긴 것이기에 즉 계를 잃게 된다. 이 양변을 멀리하기 위해 중도에 합치한다. 그렇기에 ‘비유비무’라고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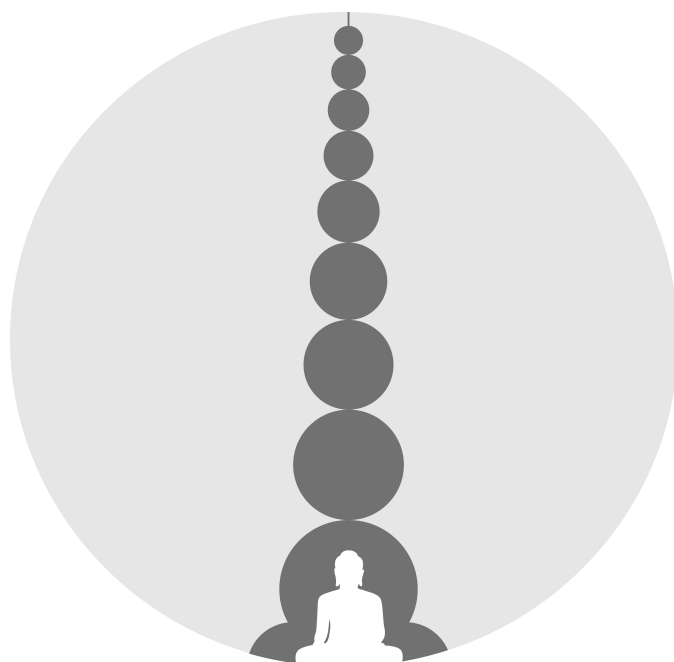
★ 밑줄 그은 구절은 각각 “만약 어떤 이가 (계에 대하여) ‘없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 집착하여 있다고 여긴다면”, “만약 어떤 이가 (계에 대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 집착하여 없다고 헤아린다면”과 같이 고치는 게 좋아 보임. 이는 ‘접근방법’, ‘설명방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門’ 자를 살려서 번역한 것임.

5. 각주 50번

《梵網經菩薩戒本私記》卷1：「問種子家中防非義為戒者。種子以上假立耶。不爾。答種子上不假立。舉體為種子。亦舉體為戒。問若爾者。失戒時生。後種子亦失耶。答雖體無異。而種子家中戒門全滅。戒家種子門舉體不滅。譬如水與浪。雖元異體。而風息時。浪門以全滅。而水門者全不滅」(CBETA, X38, no. 683, p. 279, b24-c5 // Z 1:95, p. 113, a18-b5 // R95, p. 225, a18-b5)

번역문: 묻기를, 종자 속에 바르지 않은 것[非]을 막는 의미가 ‘계’가 된다는 것은, 종자의 위에 가립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대답하길, 종자의 위에 가립한 것이 아니다. 체를 들어 종자가 되고, 또한 체를 들어 ‘계’가 된다. 묻기를, 만약 그렇다면 ‘계’를 잃을 때 뒤에 생긴 종자도 또한 잃는 것인가. 대답하길, ‘체’가 다른 것이 아니기에 종자 속에서는 모두 멀하지만, ‘계’ 속에서는 종자가 ‘체’를 들고 있기에 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바닷물과 파도와 같이 본래 ‘체’가 다른 것이지만 바람이 그칠 때 파도는 멀하나 바닷물은 전혀 멀하지 않는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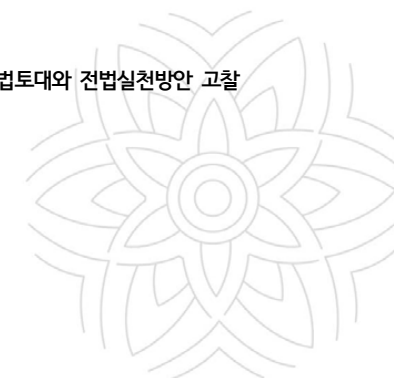
★ 바닷물과 파도의 관계는 계와 종자의 관계와 같으므로 원문의 ‘雖元異體’는 논리적으로 어색함. 여기에서 ‘元’ 자를 사본의 ‘无’ 자의 오식誤植으로 보고 밑줄 그은 부분을 “비록 ‘체’의 다름이 없어서”으로 바꿔 번역하는 것이 뜻이 잘 통함.



발표 - 2 한마음선원의 전법토대와 전법실천방안 고찰

백도수 (능인대학원대학교 교수)

- 1992 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 1998 년 독일 프라이부르크 인도학과 대학원을 졸업 . 2001 년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인도불교 전공에 「비구계경 (Pātimokkhasuttam)에 대한 연구」 로 박사학위 수여 .
 - 서울대총불회 지도법사, 전국대불련지도법사, 여성불교개발원 연구교육위원장을 역임 했으며, 동국대, 금강대, 원광대, 서불대, 중승대 등 강사를 역임함 .
 - 2014 년부터 현재 능인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전법학, 불교의례 전공 교수로 있다 . 현재 25 대 한국불교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음 .
 - 저·역서와 논문으로는 『위대한 비구』, 『위대한 비구니 1』, 「승가와 비구개인의 소유물에 대한 연구」, 「불교대치명상의 심리치료에 대한 고찰」 등이 있음 .
 - 수상 내력으로는 18 회 조계종역경상을 수상하였고, 제 2 회 전법학술상을 수상했음 .
-



백도수 (농인대학원대학교 교수)

한마음선원의 전법토대와 전법실천방안 고찰

I. 들어가는 말	53
II. 한마음선원의 전법현황과 그 토대	54
1. 전법현황	
2. 전법토대	
III. 한마음선원의 전법실천방안	67
1. 전법실천	
2. 적정 전법방안	
IV. 나오는 말	84

I.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한마음선원의 전법현황과 묘공 대행의 전법토대 그리고 한마음선원의 전법실천과 현실에 맞는 맞춤 전법의 방안을 다룬다. 이를 위해 먼저 한마음선원의 국내외 전법현황을 혜선의 논문과 홈페이지(Homepage) 내용으로 보충하여 살펴본다. 아울러 붓다의 전법토대와 빗낼 수 있는 대행스님의 전법토대를 『한마음 요전』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토대를 찾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한마음선원의 전법환경을 SWOT(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기(threat))분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전법의 실천 부분에서는 빠알리, 범어, 한문 경전에 나타난 전법과 전법학 연구자료, 조계종의 전법자료와 설법연구자료 등을 참조하여 전법의 이론과 실습, 훈련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한마음선원에 적용 가능한 전법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현대사회전법에 필요한 물리적 온·오프라인 전법기술과 Wacom을 활용한 네 컷 웹툰, 메타버스, 유튜브, 인스타프로그램, 1인방송 등의 전법도구 활용과 전법의 정신적 자료가 되는 불교적 내용과 더불어 묘공당 대행의 가르침이라는 전법의 토대분석 그리고 시간, 지역, 대상과 내용에 맞는 전법구축은 한마음선원의 전법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혜선의 논문 「생활참선 수행도량, 한마음선원의 포교현황과 미래의 방향」에서 한마음선원의 포교활동과 현황을 상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법현황의 연구에 주안점을 두기보다 실제적 전법대안으로 적합한 한마음선원에 적합한 전법토대구축과 전법프로그램의 마련, 전법인재양성프로그램과 실천이론과 기술, 실습방안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음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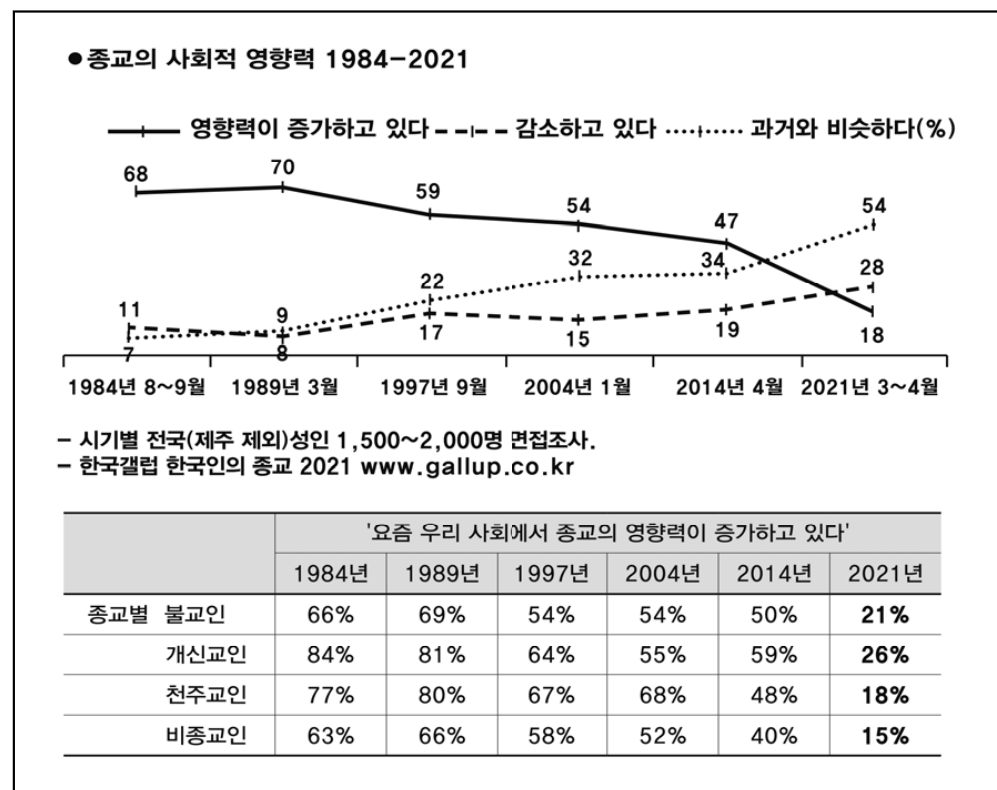
II. 한마음선원 전법의 현황과 토대

1. 전법현황

1) 국내전법현황

현재 한국불교는 인구수와 종교인, 승려출가수 감소로 전법에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갤럽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은 아래와 같다.

<표 1>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1984-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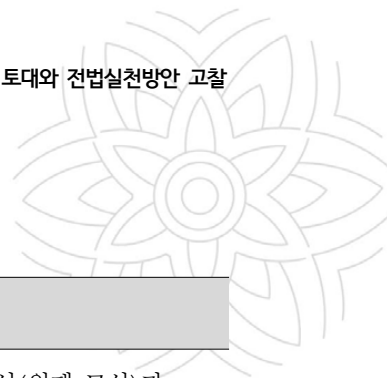
위의 제시된 자료에서 보는 바처럼 사회 영향력은 급격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21년 종교인의 분포도 전체 인구 중 불교 16%, 개신교 17%, 천주교 6%, 비종교인 60%로 분포되었다. 종교에 대한 비호감 정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1년 종교인의 비율(18세 이하 제외)은 전체 40%, 남성 34%, 여성 56%이며 19-29세는 22%, 30대 30%, 40대 32%, 50대 43%, 60대 59%로 연령대의 전체 인구수에서 종교를 믿는 숫자는 해마다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연령별로 불교의 종교인 분포는 19-29세 4%, 30대 6%, 40대 11%, 50대 23%, 60대 이상 28%로 나타났다.¹⁾

기독교의 경우에서도 코로나 최근 몇 년 40만씩 신자가 줄어들고 있다. 또한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불교인구도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는 인구수 감소와 더불어 포교당 수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현재의 대형 포교당의 경우에도 포교담당 승려와 전문 승려 포교사나 사찰행정승려가 부족한데서 심각한 포교문제, 즉 분원이 소실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단위 사찰에서도 승려가 부족하니 전법사나 포교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승려와의 연계성이 쇠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부산지역에서 통도사의 포교역량이 가장 우수한 이유는 바로 통도사 출신의 승려의 적극적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²⁾ 한마음선원은 지역거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지역의 승려파견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역 포교에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1)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9>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2) 종교에 대한 인식

2) <http://tongdosa.or.kr/map/> 전국에 216개의 말사가 있으며 부산지역에서는 36개의 말사가 있다. 통도사의 인재배출과 말사와의 좋은 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마음선원의 전법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두고 현장조사와 인터뷰 등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해야 하지만 국내전법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이미 진행되었기에 여기서는 전반적으로 한마음선원의 포교현황³⁾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여 소개 하는데 그치고 그에 대한 견해를 다른 단체와 비교 설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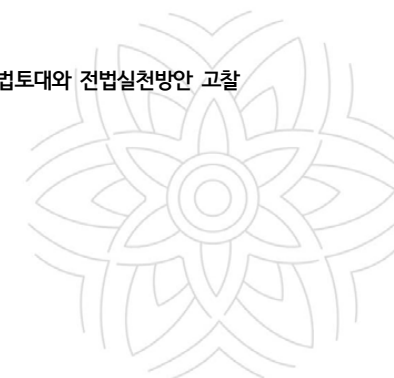
<표 2> 한마음선원의 포교현황

현 황	내 용
본지원(15)	안양본원, 지원(광명, 제주, 부산, 광주, 울산, 대구, 마산진주, 공주, 포항, 청주, 강릉, 통영, 목포, 문경)
신행회 활동	전체법회, 보살, 거사, 청년, 학생, 어린이 법회, 주말 직장인법회
선법가와 합창단	한마음선법가, 대행선 반영, 합창단 활동(보살, 거사합창단, 어린이합창단)
언론과 매스미디어 포교	<현대불교> 신문, 사찰홈페이지, 유튜브 방송. 부다피아, 세계최초불교인터넷방송국HBTV(현재 한마음선원 유튜브로 발전)
경전한글화 및 문서포교	천수경, 반야심경, 금강경 한글화, 화엄경 미완, 한글화 작업 시행 묘공의 법어집 출간, 『한마음』(대중포교지), 『영원의 오늘』, 『한마음요전』, 외국어 법요집 출간(포교용으로 사용), 『허공을 걷는 길』16권, 오디오, 비디오 법문 포교에 활용, 『마음꽃』(어린이 포교지), 『진짜 어린이 마음사전』, 『마음에도 근육이 필요해』, 『어린이 생각 연구소』, 『귀 기울여 들어보니 큰스님 말씀』

현 황	내 용
국내 최초 영탑공원 조성	광명선원, 제주, 진주, 중부경남지원에 영탑조성(위패 모심)과 합동천도재 봉행.
한마음과학원	심석과학, 비영리연구, 교육기관, 생활관법 실참실수,
한마음국제문회원	한마음번역부, 외국어 번역본 도서전시회, 외국불교서적 간행(해외포교지침서)
한마음연구소	『한마음연구』, 학술연구
칠보탑과 구정탑	생, 복두칠성, 우주연결망을 상징, 우주탑, 자신의 주처로서의 칠보탑, 멸, 9품중생, 구정토, 도량탑, 발원장소로서의 구정탑
한마음유치원	부산지원, 묘공의 가르침을 따르는 어린이 양성, 유아 포교 중심, 유아명상법
문화활동	초파일 연등행사, 점등식
기타	문경, 부산, 광명지원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및 아이들을 위한 문화강좌(요가, 간병인교육, 예비 부부교실, 사찰요리, 선법가교실, 방과 후 교실의 학습강좌, 법률 특강 등), 장학사업, 군포교, 교도소법회, 자원봉사활동, EM지구사랑환경운동과 의식개선 등

국내전법의 경우 교구본사의 본말사의 틀을 제외하고 본원과 분원을 가진 단위사찰은 한마음선원, 능인선원, 정토회, 영남불교대학을 포함해 많지 않으며 신흥포교당 형식을 띠고 있다. 능인선원, 정토회, 영남불교대학은 불교대학을 중심으로 발달했으며 신도는 지역조직과 불교대학기별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도 국외에까지 분원을 가지고 전법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 단체는 한마음선원을 제외하고 거의 없는 것

3) 혜선(이균희) (2022), 75-110.



으로 파악된다. 한마음선원 입장에서 전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신도시나 대도시 지역분원이 2001년 이후 생기지 않아 분원의 확장문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마음연구원과 한마음과학원의 경우 실현가능하고 단순하고 명료한 목표와 실천방안이 요구된다. 실현 가능한 장단기 계획을 세우고 년차별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분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과도한 목표는 오히려 실현가능한 목표를 외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대에 맞춰 미디어부, 디자인실, 영상 포교부와 방송부 등의 방송활동의 역량강화가 전법활동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공지능시대에 맞는 콘텐츠와 전달기술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한마음선원의 구성 산하부서로서 종무소, 자료관리부, 출판부, 사료편찬부, 미디어부, 사보편찬부, 디자인실, 영상 포교부, 방송부, 산하단체로서 대행선연구원, 한마음과학원, 한마음국제문화원, 대외협력기관으로서 EM지구사랑작은실천, 무진향, 불교문화강좌, 관련기관으로서 현대불교신문은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고 영역활동을 원만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한마음선원의 실제적인 전법현장이라고 볼 수 있다.⁴⁾ 그래서 한마음선원의 관련기관의 구체적이고, 분업적이고 유기적인 활동강화는 전법의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4) https://hanmaum.org/content/one_org_02?me_code=1080100000 '선원의 조직과 단체'

2) 국외전법현황

국외불교는 서양과 동양으로 나누며 서양불교는 20세기 초부터 유럽에서 전법이 진행되었고 미국에서는 유럽보다 늦게 진행되었다. 현재 구미는 주로 티베트 불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달라이라마와 고 톽낙한의 전법효과가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현재 서양에서 전법의 주요한 방법은 바로 명상이나 불교의례와 문화전법이 주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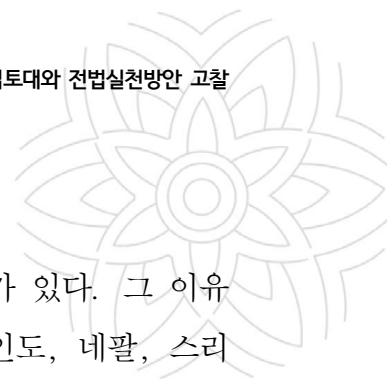
한마음선원의 해외지원으로 독일, 뉴욕, 로스엔젤레스, 시카고, 워싱턴, 부에노스 아이레스, 뚩꾸만, 토론토, 태국지원, (브라질지원)이 있다. 홈페이지(또는 '한마음선원' 어플)로 조사한 지원의 활동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홈페이지가 오랫동안 활동상황이 없는 경우와 활동의 미비는 최근의 코로나 상황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⁵⁾ 9개의 국외지원의 홈페이지는 뚩꾸만을 제외하고 8개가 운영되고 있지만 외국어로 안내된 홈페이지는 독일(Hanmaum Zen-Zentrum), 워싱턴(Hanmaum Seon Center of Washington D.C.)⁶⁾, 부에노스 아이레스(Hanmaum Seon Center)만이 보인다. 그러나 크게는 외국인을 위한 법문이나 소통, 명상, 상담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지는 않는다. 이렇듯 외국지원에서의 외국인 상대로 전법이나 설법하는 활동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은 앞으로 해외포교의 일선에서 반드시 재고해야 할 문제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진행했던 뉴욕지원의 한마음한국학교⁷⁾와 어린이 여름캠프⁸⁾ 등 현지화 노력은 높이

5) https://hanmaum.org/content/one_status_global?me_code=1040300000

6) <https://www.hanmaumdc.org/>

7) https://nyk.hanmaum.org/content/con_Individual_newyork_10?me_code=3010000000

8) https://ger.hanmaum.org/jiwon_news/1665



평가할 만하다.

국외전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바로 전법사의 언어능력과 설법능력, 수행지도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전법의 가장 어려운 점은 불교를 알고 있어도 현지 언어로 설법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한 능력을 갖추려면 현지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의 학력이수를 하는 것이 전법에 용이하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현지인 출신 스님이나 현지 언어에 능통한 스님의 경우는 전법활동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에서 문화적 충격과 더불어 처음에 부딪히는 전법의 문제는 결국 현지 언어 사용능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국에서 현지 언어를 미리 배울 수 있는 설법, 전법, 수행지도,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설법 등을 현지 언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불광산사의 경우처럼 한 스님은 현지에서 학위과정을 거치고 한 스님은 행정을 담당하여 서로 분업하는 체계를 갖춘다면 전법을 해 나가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마음선원의 외국전법은 첫째 현지 언어의 소통과 전법능력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아울러 불교, 한마음선원 사상, 명상, 상담, K-문화, K-food 등에 전문능력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외국전법에서 언어 소통과 불교에 대한 식견, 지도자적 소양 등을 겸비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국외전법에 맞는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외지원에서 활동한다면 한마음선원의 국제화 성공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세계에 명상과 K-culture, K-food 등이 유행하는 시기에 한마음선원의 적극적인 전법대응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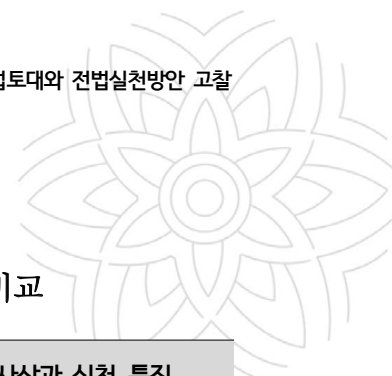
또한 국외전법 장소도 새로운 곳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불교의 전통을 담고 불교를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인도,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의 국외전법이 한마음선원의 입장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승려전법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자 불교를 배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구미권에 집중된 한마음선원 국외지원문제를 논의를 거쳐 한마음선원의 국제화를 위해 새로운 전법장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구미는 명상컨셉으로, 인도 등은 외국인 비구니출가와 전법확장이 라는 컨셉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다.

2. 전법토대

1) 묘공당 대행의 전법사상과 실천

묘공당 대행은 내면 소통이 가능했으며, 자비롭고 따스한 마음주인 공 아빠의 이미지를 깨치셨고 계율이나 경전의 좌선에 매이지 않고 무심한 경지에 노닐었다. 수많은 죽음에 직면했지만 그것을 극복하였고 내면의 대화를 통해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것은 포교의 바탕이 되었다. 병을 치유하고 많은 중생의 아픔을 대자비심으로 자신의 아픔처럼 여겼다. 끊임없는 학습의 경험의도는 더욱 자비심이 깊어 갔다. 이러한 내면적 대화와 자비심⁹⁾, 경험은 전법의 기본적인 토대사상이 된다. 또한 신도의 산중고생에 대한 신세 한탄을 하지 않았는지의 질문에 “내가 그

9) 전법의 토대로서 자비심은 중요하다. 한마음 요전(2017) 126에 “이 세상이 너무 뼈아프고 너무나 눈물겨웠기에, 제발이지 다른 사람들만은 뼈아프지 말았으면, 다른 사람들만이라도 눈물 없이 살았으면 싶었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이 정그럽다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뱀 따위에게 측은한 마음을 느끼곤 했었다.”라고 하는 구절에서 묘공당 대행이 얼마나 자비심이 가득차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



<표 3> 붓다와 묘공당 대행의 전법특징 비교

붓다의 전법사상과 실천 특징	묘공당 대행의 전법사상과 실천 특징
가르침 교화를 통한 전법 위의에 의한 전법 신통력에 의한 전법 승가를 통한 전법 방문전법	치병을 통한 전법 문제해결을 통한 전법 믿음과 수행유도를 통한 전법 경험을 통한 전법 방문전법

묘공당 대행은 “여성이셨어도 부드러운 듯, 깨끗한 듯 특이한 조화를 느끼게 했다. ... 걸림이 없이 자연스러운 언행 천성이 매우 온화하셨다. 제자들과 신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결같았고 그들을 응대하심에 있어 조금도 넘고 처짐이 없이 평등하셨다.... 마음이 항상 자상하셨다.”¹¹⁾라는 전법자의 부드럽고 자비로운 품성을 지녔다. 이처럼 전법자는 선하고 자비로운 품성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무차별 응대하고 사섭법을 통해 전법의 마음을 삼고 욕과 모함의 위험조차도 감내해야 한다¹²⁾는 전법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한마음선원의 전법정신이 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2) 전법의 자원환경

전법의 자원환경은 인적자원, 물적자원의 환경으로 이해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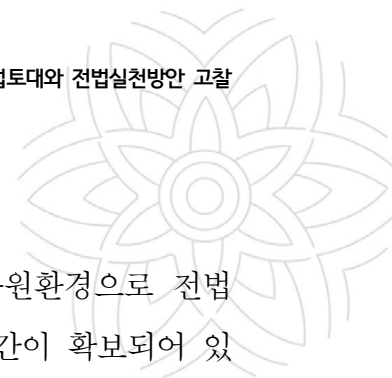
렇게 하계끔 세상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다녔고, 따라서 억울할 게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좋을 때가 많았는데 ...”라고 하는 구절에서 보듯이 이러한 긍정적 사고는 전법의 긍정, 일체중생의 긍정으로 인한 전법활동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

그는 치병을 전법에 적극 활용하였으며 전법의 토대로서의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원주에서 안양으로 이전하였다. 전법에서는 공간의 확보가 중요한데 그곳에서 가르침을 열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모임의 장소는 전법활동의 터전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인공 자리에 맡겨 두는 가르침이나 생활 불교의 구체적 실천을 가르친 점도 전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법사찰을 지원하고 순회법회와 특별법회에 참석하며 책으로 친견으로 영상매체로 음악으로, 연구원설립으로, 포교재단설립과 해외지원설립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전법을 시도하고 실천한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전법활동이 무엇인지를 숙고하게 하는 좋은 단초가 될 수 있다. “불교 속에 모든 종교가 들어 있으니 일체 제불의 한마음으로 포교에 힘쓰라”¹⁰⁾고 하고 적극적으로 포교활동에 개입하고 실천하였다. 또한 쉬운 설법과 말씀 그리고 베품과 문제해결을 위한 전법은 현시대의 전법토대와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붓다와 묘공당 대행의 전법 특징을 비교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10) 『한마음 요전』 (2017), 158

11) 『한마음 요전』 (2017), 214.

12) 『한마음 요전』 (2017), 225.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하고 모함했다고 해도 그건 어제의 일이다. 나는 오늘을 묵묵하게 살아갈 뿐이다. 코끼리처럼 투박투박 걸어갈 뿐 내가 어떤 경지에 올랐든 개의치 않고, 세상 사람들이 무어라 하든 관계치 않는다. 나는 진실을 믿을 뿐이다.”



다. 인적자원은 사원 내 승려와 재가자에 관련된다. 승려는 국외, 국내 거주 승려와 본원 거주 승려, 분원 거주 승려 그 밖의 다른 곳에 거주하는 승려이다. 승려의 전법, 상담, 설법, 의례의식, 다도, 사찰음식 전문가 등이 얼마나 있는가가 중요하다. 특히 집단교육참여를 통한 자격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최근 봉녕사 여러 비구니스님들이 상잉불 명상자격증을 단체로 획득한 경우처럼 한마음선원에서도 스님들의 자격증 획득에 필요한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방문교육을 통한 자격증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전법에서는 인적자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법을 리드하고 조직화하고 활동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전법자원과 환경을 조성하고 전법의 성공과 실패도 모두 전법에 관련된 이의 능력, 인간관계와 전법환경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전법의 인적자원은 먼저 지역 내외, 사원 내외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 내외는 지역전법활동가, 전국전법활동가로 구분할 수 있다. 사찰 내는 비구, 비구니, 직원과 신도가 있는데 특히 직책을 맡은 간부신도의 전법활동이 중요하다.

특히 인적자원의 능력을 분석하고 시간과 장소에 적합하게 배치하고 능력에 맞춰 전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전법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법환경에서 설법환경은 시간, 관련 강의(설법)의 유무, 청중의 특징, 설법 장소, 설법연단, 복장 등을 고려해야 한다.¹³⁾ 설법시에도 마이크 준비, 프로젝션 등 설법의 물리적 환경과 더불어 설법자 개인에 관해 설법자의 능력고려, 설법스타일, 자료배포, 수준에 맞는 설법교안의 구성과 내용, 청중 상태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13)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편저(1995a), 99.

전법환경에서 특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바로 사원환경으로 전법 활동공간과 연관된다. 어린이, 청소년 등의 독립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전법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가? 전법훈련공간이 있는가? 라는 등에 대한 물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온누리교회¹⁴⁾에서처럼, 한마음선원의 시설로서 청소년문화 공연연습실과 공연장 등이 마련된다면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한마음선원의 전법을 위한 SWOT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승려수, 음악회, 신도의 신심, 본원 구심력, 연구활동, 지속적 법회활동, 신도활동	승려교육, 재가교육, 인터넷 관리, 다양한 교육콘텐츠, 창의적 대안부족, 경직된 연구방향, 인터넷소통의 부재, 신도교육 체계화문제, 외국인 전법의 역량
기회(Opportunity)	위기(Threat)
새로운 환경조성, 변화시도, 연구활동, 국제화가능성, 전법교육과 실천, 온라인연결망, 명상과 상담활성화	종교와 불교의 위기시기, 인구수감소, 종교인수 감소, 불교위상 감소, 대행스님 열반,

한마음선원의 전법은 강점과 기회를 살리고 위기와 약점을 줄여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점을 단계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현실적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승려수 150명을 단기 2년 장기 5년의 과정을 통해 10명씩 체

14) www.onmuri.org



계적으로 전법교육을 실시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되도록 양성하는 프로그램과 실습과정을 도입해야 한다.

조계종에서 보여주는 품계제도처럼 신도도 품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교교육과 더불어 한마음선원에 맞는 품계와 지위 역할을 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법, 설법, 명상, 상담, 불교문화전문가 등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요구된다.

한마음연구소의 연구분야를 학술연구와 신앙연구로 세분화하여 먼저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묘공당 대행의 법문을 시간, 장소, 대상, 내용, 범수별로 세분화하고 글과 그림, 각종 시청각 자료 등을 포함한 신앙교재로 만들어야 한다. 한마음과학원은 한마음주인공관법을 심리학적 데이터를 제시하는 학술연구와 학제간 연구를 지속하고 주인공관법을 과학명상화하고 한마음 생활명상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처럼 다양한 목적을 지향하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고려한 연구방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집중연구의 결과물을 축적하는 것이 효과적인 연구원활동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마음국제문화원에서는 국제화에 맞춰 미디어를 마련하고 K-문화의 국제화처럼 H(한마음)의 문화(예술, 의례, 불교문화 등)의 국제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석가모니불의 멸 후 도시 큰 사거리에 8개의 사리탑이 세워졌는데 이것을 아쇼카왕이 8만4천 탑으로 분파하여 전국 마을 마을마다 세웠다고 전한다. 스리랑카의 사원은 불상, 탑 그리고 보리수가 있어야 절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한마음선원의 입장에서 보면, 본원의 칠보탑과 구정탑은 상징적으로 모든 분원에 소규모일지라도 건립되어야 한다. 또한 공동체의식은 공동체가 서로 공감하는 공동의 환경조성에서 비롯되므로

한마음선원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III. 한마음선원의 전법실천방안

1. 전법실천

1) 전법실천이론과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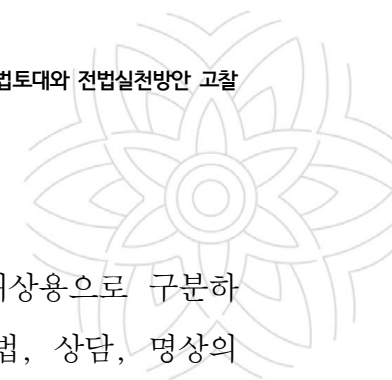
이 장에서는 전법실천이론을 크게 불교전법실천이론과 묘공당 대행 사상에 기반한 전법실천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법실천이론은 시간, 장소, 대상과 내용으로 간략히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어느 때, 어느 공간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전법을 실천할 것인지 분명해야 한다.

혜선은 “일상생활에서 참자유인이 되기 위한 수행요체가 바로 ‘주인공관법’이다. 이 관법은 한마음주인공에 대한 강한 믿음과 맡겨놓음, 지켜봄으로 수행체계를 세운 것이다.”¹⁵⁾라고 하여 실천이론의 토대를 확고히 하였다.

한마음선원의 국내외 본, 지원 20곳에서 수행과 포교를 하고 있는 150인의 비구니와 비구 스님들이¹⁶⁾ 전법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전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전법전문가양성을 위해 우선 전법 노하우, 기술을 익혀 나가는 것

15) 혜선(이균희) (2022), 68-69.

16) 위의 논문, 80.



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마음전법사 양성은 2대 한마음선원의 발전 양상의 틀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점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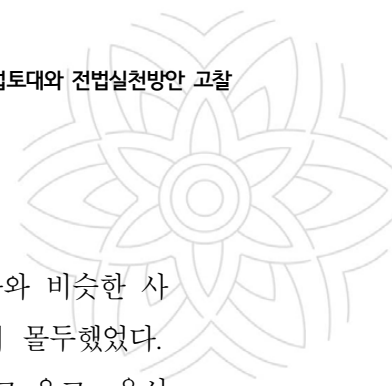
전법과 설법을 위한 자료수집, 자료이해와 분류화, 주제의 선정과 주제의 구성요소 배열, 다양한 실천기술의 습득과 실천훈련, 현장실습 후의 효과 검증, 전법전문화 훈련과정을 거쳐 전법실천기술을 습득해 나가야 한다.

전법실천기술 중에 전법, 설법, 명상지도, 상담 등의 기술은 먼저 경전 자료화기술에서 비롯된다. 경전자료는 『법회와 설법』, 한글대장경, 구글 검색, 한글대장경 주제별 색인 인용, 사전(『가산불교대사람』 등), 각 단위사찰이나 포교당의 불교대학 교재, 각종 ppt, 그림, 글 자료, 동영상 자료 등을 수집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구정탐을 설명하면서 탐에 대한 경전, 연구자료, 인터넷 이미지, 스토리, 애니, 동영상 등의 자료를 먼저 수집한 구정탐의 내용을 수집 보충하면 탐의 개념과 종류, 발전과 비교와 더불어 구정탐의 의미와 내용설명에 용이할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한마음이라는 자료수집에서도 마음과 한마음의 경전자료와 각종 2차 연구자료, 마음에 대한 그림, 글, ppt, 한마음에 대한 그림, 글, ppt자료, 동영상 자료를 자료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법으로 경전자료와 『한마음 요전』과 한마음관련 연구서적과 기타자료 등을 자료화하고 전법교육의 매체로 이용하여야 한다.

전법훈련 프로그램은 승려와 재가로 구분하고 수준별로 적정한 전법훈련을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승려와 재가의 수준별 전법훈련교육은 개인교육과 집단교육으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각자의 전법기질과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전법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전법지도자용과 전법대상용으로 구분하여 교재를 마련해야 한다. 전법지도자용은 전법, 설법, 상담, 명상의 지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제로 설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재화, 자료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전법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플랫폼에서 수시로 전법지도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 대상과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연구자나 담당지도자의 역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연구소에서 진행하도록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전법대상용으로는 단계를 맞춰 새신자용이나 기존신자용이나 간부지도급이나 신도전문가용으로 세분화해서 교재를 마련하여야 한다. 단계에 따라서 한마음 요전의 내용은 도표, 글, 그림이나 이미지, 문답, 해설, 온라인 자료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표로 보는 한마음 요전이나 법수로 보는 한마음 요전, 그림으로 보는 한마음 요전 등이 있어도 무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상은 어린이에서 어르신까지 그리고 직능별 대상도 고려하여 전법 프로그램과 교재를 만들어야 한다. 법형제 법회에서도 법형제가 알아야 할 전법의 내용과 전법 프로그램을 자료화해서 전법에 관심을 유도하고 전법지도자로 양성하는 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할 시점이라고 본다. 전법이나 설법에 전문적인 한마음선원 지도자 자료와 프로그램, 한마음 전문 상담사, 한마음 명상전문가 등을 양성하는 자료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훈련을 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효과여부나 목적달성여부를 진단하여 다시 교정하는 과정을 거쳐 수년간 전법훈련 프로그램 완성에 매진해야 한다.



사례1: 문답훈련 프로그램

붓다 전법 노하우 중의 하나가 바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아울러 묘공당 대행의 가르침에도 수많은 문답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문답에 능숙한 전법사, 설법사, 상담사, 명상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문답의 기본을 익혀나가야 한다. 현재 널리 문답기술을 발달된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¹⁷⁾은 한마음선원에서 배울 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불교내에서도 보면, 경전에 문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특히 티베트에서도 승려의 문답교육은 널리 알려져 있어 깨달음 논쟁이나 수행단계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질문의 기본은 육하원칙에 따른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질문법이다.

『한마음 요전』에 묘공이 “어떻게 해야 죽습니까? 어디까지 가면 죽습니까?”¹⁸⁾라는 질문에서도 그 질문하는 방법을 잘 엿볼 수 있다.

『한마음 요전』에 따르면, 묘공당 대행은 과거를 회고하면서

“처음에 내가 가장 의아하게 생각했던 문제는 ‘세상에는 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며 왜 부자보다도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

이 더 많은가.’하는 점이였다. 내 신세도 처량하지만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부터는 내내 그 생각에 몰두했었다. 그러다가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육신이 병들어 아파하다가 때가 되면 죽어 가는데 도대체 그렇게 살아서 무엇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도무지 살 의욕이 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생각하기를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었는가. 누가 나를 형성시켜 놓고 어느 날 갑자기 알거지로 만들었는가. ... 그러나 그 숲속은 내게 더할 수 없는 위안처였고 거기서 나는 평화를 느끼고 있었다.”¹⁹⁾

라고 하였다. 위에서 언급된 문구에 맞추어 질문하는 훈련을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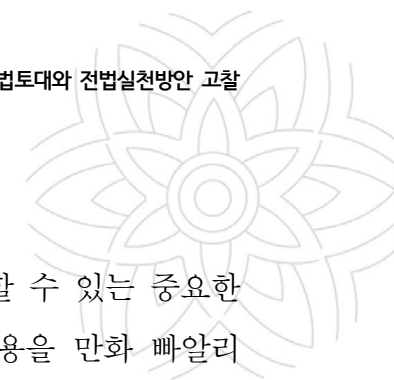
‘처음이란 언제인가? 내가란 누구인가? 의아하게란 무슨 의미인가? 문제란 무엇인가? 세상이라는 어떤 세상을 말하는 것인가? 부자란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란 무엇인가? 등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 무슨’이란 말로 질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왜 부자가 있는가? 왜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왜 부자보다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사람이 더 많은가? 부자란 얼마를 가져야 부자인가? 왜 가난한 것인가? 병든 사람이란 누구인가? 왜 병든 사람이 되는가? ... 돈 때문이란 무슨 의미인가? 위안처란 어디인가? 어떻게 평안해지는가?’라는 등으로 질문을 던지고 대답 훈련을 혼자서나 둘이서, 또는 여러 명이 묻고 답하여 문답훈련을 습득해 나갈 수 있다. 경전에서뿐만 아니라 『한마음 요전』에서나 일상생활의 문구에서도 문답훈련을 반복하면 문답에 능숙해질 수 있다. 이미 『생활속의 불법수행』²⁰⁾이라는 책을 통해 묘공스님과의 문답에 여러 사

17) <https://ko.wikipedia.org/wiki/%ED%95%98%EB%B8%8C%EB%A3%A8%ED%83%80> “하브루타(히브리어: חֲבֵרֻתָּה חַבְרֻתָּה, 영어: chavruta, havruta)는 정통 유대교 교리를 따르는 유대인의 전통적 학습방법이다. 문자적 의미는 함께 (together), 우정, 동료 등을 뜻한다. 예시바(yeshiva) 및 코렐(kollel)에서 주류적 학습법이다. 교사-학생간의 관계와 달리, 하브루타 학습에서는 각자가 분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조직화하여 상대방에게 설명하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면서, 때로는 전혀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기도 한다. 2000년대에 들어 전화 및 인터넷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좁은 의미로는 동급생, 넓은 의미로는 가정, 선생님과 서로 대화함으로써 서로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 사고력, 창의력을 함양할 수 있다. 친구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인 하베르에서 유래한 용어로, 학생들끼리 짝을 이루어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논쟁하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토론 교육 방법. 유대교 경전인 《탈무드》를 공부할 때 주로 사용된다.”

18) 『한마음 요전』(2017), 49.

19) 『한마음 요전』(2017), 27.

20) 현대불교신문사 엮음(2015)



례로 상세히 서술되어 있는데 그것도 위의 육하원칙에 대한 질문과도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맡긴다’는 게 무엇입니까?’(40), ‘무엇을 맡기고 관해야 합니까?(44), 나쁜 일들은 왜 생깁니까?(62)’” 이런 질문은 단문뿐만 아니라 여러 문장으로도 가능한데 막연한 물음보다 보다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법으로 훈련하여야 한다. 질문의 문장에서도 자신의 문제 등과 관련하거나, 스토리나 그림, 행동 등을 연결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범륜스님의 즉문즉설²¹⁾, 지광스님의 범고대통²²⁾ 등도 다 이와 관련되어 있다, 한편 주의해야 할 점은 대답하는 경우 지루할 정도로 긴 시간을 할애하거나 무관한 대답을 해서 청중에게 불쾌한 느낌을 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불교적 질문에는 경전에 이유나 비유, 행위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한마음선원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한마음 요전』이나 묘공당 대행의 말을 빌어 비유, 스토리, 그림, 행동 등 다양한 대답 자료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스토리텔링후려

스토리텔링 전법훈련은 스토리텔링을 사용하여 비신도나 신도에게 법을 전하는 방법을 말한다. 스토리텔링의 기법과 자료는 이미 널리 소개되었다.

한마음공방의 유튜브²³⁾에 따르면, 좁쌀 세톨, 복 주머니 등 스토리

21) <https://www.jungto.org/pomnyun/talk>; <https://band.us/@seoulzz> “2012년부터 국내 및 해외에서 1,200회 이상 진행된 즉문즉설을 이제, 온라인으로 쉽고 가볍게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온라인 생방송으로 만나보세요~”

22) https://www.bbsi.co.kr/HOME/tv/tv_onair_vod_list.html?ProgramCode=1405

23) <https://www.bing.com/videos/search?q=%ED%95%9C%EB%A7%88%EC%9D%8C%EA%B3%B5+%EB%B0%A9%EA%B3%B5>
‘함마음곶밥’

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낸 것은 스토리텔링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법으로 보인다. 현재에도 BBS에서는 초기불교의 내용을 만화, 빠알리 대장경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제공하고 있다.²⁴⁾

그림전법²⁵⁾훈련

모든 경전을 그림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보다 쉽게 전법을 할 수 있다. 『법구경』²⁶⁾, 『반야심경』, 『금강경』, 『천수경』 등을 하나의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한마음 요전』의 수많은 가르침도 또한 그림화할 수 있다. 그림화를 통해 보다 암기하기 쉽고 가르치기에 용이하다.

예를 들어 한마음 요전에 스님들의 고무신 가르침에서 스님들의 고무신을 그림이나 실제로 먼저 보여준 후에 예화를 이어간다면 보다 묘공의 가르침을 이해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더욱이 고무신에 대한 다양한 그림이나 신발 이야기²⁷⁾ 등도 보충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전법이나 설법, 상담, 명상 중에도 4층 법
당의 중생세계를 찍어 보여준 후에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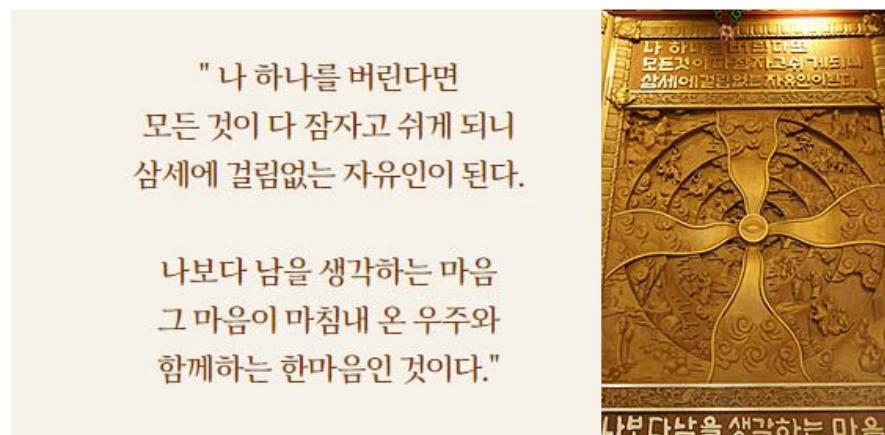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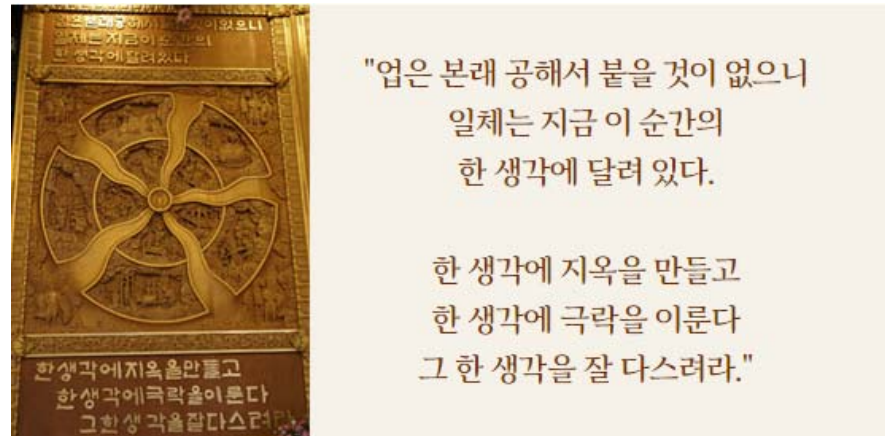
24)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만화+배알리대장경

25) 백도수(2020), 「그림의 전법활용에 관한 연구」, 참조.

26) http://www.buddhanet.net/dhammapada/d_twin.htm 423개 계송을 각각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27) 『함마음 요전』 (2017), 29-40.

<그림 1> 한마음선원의 그림과 글 활용



좌측에는 지옥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연직사자, 월직사자, 일직사자, 시직사자가 탕화 네 모서리에 조각되어 있고, 그 안 쪽으로 오간 지옥에 빠져 허덕이는 지옥 중생들의 모습들이 애처럽고 가엽게 묘사 되어 있습니다. 끓는 기름물 속에서, 칼 산속에서, 혹은 구렁이 굴에서, 혹은 지옥의 형장에서 발을 갈 듯 혀를 가래로 갈리고, 팔을 늘어 못질을 당하고 톱과 칼로 썰리는 지옥 중생들의 처절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중생계를 표현한 목각 탕화 위 아래로 선사의 계송이 새겨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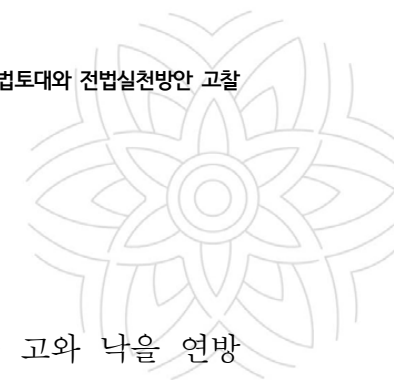
자루 포대에 대해서도 그림으로 먼저 자루 포대를 보여주고 청자의 관심을 유도한 후에 그림을 보고 이야기 하고픈 것을 말하도록 유도하고 묘공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심을 유도할 수 있고 가르침은 현장감과 더불어 보고 들은 경험 자료로 인식되어 장기 기억에 각인되게 할 수 있다.

맷돌 이야기 가르침²⁸⁾에서도 먼저 맷돌을 보여주고 맷돌의 전체가 무엇이 있는지 소통하고 도구와 맷돌 돌리는 과정, 투입과 결과물을 설명하면 묘공의 가르침을 전하면 된다.

<그림 2> 맷돌 이야기에 관한 그림



28) 현대불교신문 위음(2015), 41-42.



비유전법훈련

붓다는 중생에게 가르침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설했다. 붓다의 비유는 달, 산, 강 등의 무생물이나 어린이, 봉사 등의 사람, 코끼리, 사자, 원숭이 등의 동물, 연꽃, 야자수 등의 식물이나 행동, 관계 특정한 개념을 보조관념으로 사용하여²⁹⁾ 의미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여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 해탈로 나아가게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보통은 -처럼, -같이, 비유하면 등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붓다는 근기의 상·중·하를 물속에 핀 연꽃, 물 표면에 걸친 연꽃, 물위에 핀 연꽃에 비유를 들어 설명하였다.³⁰⁾

마찬가지로 묘공당 대행은 수많은 비유를 통해 질문하는 이나 청자를 이해시키고자 하였다. 그러한 예는 『한마음 요전』에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데 한마음 요전의 부록 비유 색인에 스님들의 고무신, 아비묘와 지식 묘, 쓰레기 청소, 스님네의 삭발, 고아들의 생활, 다섯 손가락, 샘물, 포대 자루 등 다양한 비유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³¹⁾

설법이나 전법, 명상이나 상담에서 비유에 능통하면 개인이나 대중에게 보다 쉽게 원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이해시킬 수 있다.

비유전법훈련을 위해 먼저 『한마음 요전』 등 비유의 내용을 파악하고, 비유에 맞는 그림이나 이미지, 사진파일 등의 자료를 확보한다. 예를 들어 원숭이나 호수, 화가 등의 그림, 이미지, 사진을 보여주고 나무에 옮겨 다니는 원숭이 같이, 잔잔한 호수 같은, 그림 그리는 화가와

29) 『전법학연구』(2014), 135-139.

30) Vin I. 6; MN I. 169.

31) 『한마음 요전』(2017), 1096-1097. 소, 물고기 등의 동물과 나무와 열매 등의 식물, 고무신 등의 사물과 고아들의 생활 등 개념 등 다양한 비유의 보조관념을 포함하고 있다.

같은 마음을 설명한다.

또한 한마음 요전에 “어떻게 보면 나라는 존재는 고와 낙을 연방 만들어 내는 공장과 같다.”³²⁾라고 하는 가르침처럼 공장을 보여주거나 공장견학을 가거나 공장 모습을 보면 즉각적으로 고와 낙을 만들어 내는 나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즉흥적 비유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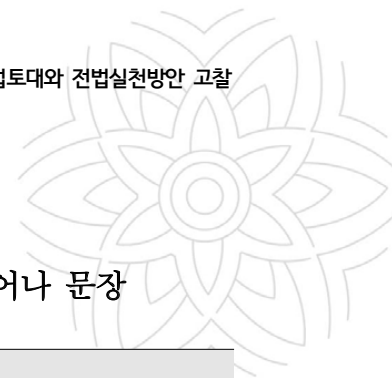
다음으로 비유자료를 보여주고 전법, 설법, 명상, 상담에도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실제적으로 응용해보는 과정을 거쳐 비유전법을 숙달해야 한다.

행위전법훈련

불교의 세 가지 행위, 신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심적 행위를 삼업(三業)이라고 부른다. 이 가운데 붓다는 교화와 위의[바른 행위]의 행동으로 중생의 이득과 복락을 헌신했다. 그래서 붓다의 신체적 행위를 모방하거나 붓다의 행동을 따라하여 붓다 닮기를 하는 것이 전법에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전법사는 행위, 행동의 방법을 알아차리고 불교적 행위 전법에 숙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행주좌와 어묵동정의 처세법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전법에서는 행동을 보여 불교로 이끌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합장, 참회, 육바라밀행, 자비행 등은 전법의 중요한 방편이 된다. “스님께서는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가르침에 힘쓰셨다. 법을 구하고자 하는 대중에게 늘 자상하셨고 결코 권태를 느끼는 기색이 없으셨다.”³³⁾

32) 『한마음 요전』(2017), 190.

33) 『한마음 요전』(2017), 162.



“너무 짜면 물 타 먹고 싱거우면 간장 타 먹는 것이 그대로 불법이니라”³⁴⁾라고 하는 구절을 직접적으로 음식 먹을 때 너무 짭 때 음식 만든 이에게 화를 내거나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물 타 먹으며 행동을 통해 묘공당 대행의 가르침을 기억해내고 법을 가르칠 수 있다.

그밖에 손동작(수인), 불교의 상징동작, 몸동작, 언어의 반복(만트라³⁵⁾, 진언이나 노래 등), 자비심 등의 표현 등 수많은 행위를 전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위 훈련을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행위를 통해 전법실습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법, 설법, 명상, 상담 등 다양한 전법 관련 분야를 활용할 수 있다.

3) 전법훈련실습

전법훈련은 언어습득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먼저 전법이나 설법을 능숙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것은 전법주제나 설법주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한마음³⁶⁾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한마음이란 단어의 앞에 사용할 수 있는 용어와 뒤에 사용할 수 있는 용어를 만들어 나가는 훈련을 할 수 있다.

34) 『한마음 요전』(2017), 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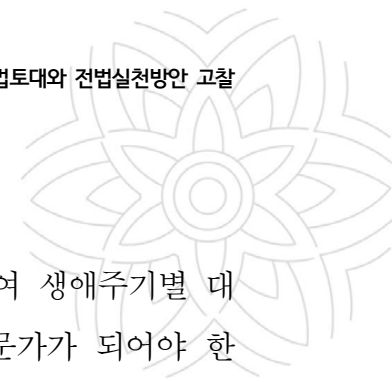
35) <https://www.youtube.com/watch?v=PTc8X37oJBE> 'Om Namah Shivaya - Krishna Das Live! Songs With Lyrics' 만트라와 음악을 가미한 새로운 음악 장르로 발전하고 있다.

36) 『한마음 요전』(2017), 346-365. 한마음과 관련된 수많은 연결단어나 문장을 파악할 수 있다.

<표> 한마음 요전에 나타난 한마음 관련 결합어나 문장

명사, 형용사, 대명사, 분사 결합		+명사, 동사, 단어구, 문장 등 결합
(346)우주 근본은	한마음	주인공(346)
(346)너무나 커서/전체라서		은 전체이다(346)
(359)각자의 마음의 주인은		에서 수만, 수억의 부처가 나타날 수 있다(347)
(350)모든 부처와 중생은		은 시공을 초월한다. (348)
묘음대행의		안에는 일체 제불이 존재한다(348)
(788)우뚝 솟은		은 우주 전체의 힘이며 공덕이다. (349)
(774)만물만생의 근원은 만인의		한 법 한 마당 바로 한 발로 디뎠노라(797)
(799)모든		식구들과 사랑을 베풀며 길 가십시오(799)
(849)일체 제불의 마음은 내		선원/연구/과학의 길/음악회/과학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앞에만 첨가한 경우, 뒤에 보충하는 경우 이외에 “여러분들이 기쁠 때 나도 기쁘고 여러분들이 슬플 때 나도 슬프니 그것은 우리가 한마음이기 때문이다.” 앞과 뒤 모두 첨가하는 경우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한마음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한마음 요전에 나오는 무수한 주제 예를 들어 주인공 등에 대해 주제를 선정할 때 전법이나 설법 훈련할 때 가능하다. 아울러 불교용어에도 마찬가지로 만일 길이라고 하면 붓다의 길, 중생의 길, 해탈의 길, 열반의 길,



죽음의 길, 행복의 길, 아름다운 길, 우리의 길 등뿐만 아니라 길을 찾아, 길로 나아가자, 길에 들어가면, 길은 당신이 말한 길이 아니라 붓다의 길이다 등으로 확대하여 연습할 수 있다. 아울러 단어 훈련에도 조건을 사용하여 ‘내가 붓다라면, ...’, ‘내가 대행스님이라면’, 또한 ‘-하겠습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보시하겠습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겠습니다.’ 또한 ‘-이다, -하였다. 왜냐하면 -이기 때문이다.’에서 예를 들어 ‘나는 행복하였다. 왜냐하면 대행스님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주인공을 관하겠습니다.’ 등 전법을 위한 단어 훈련을 꾸준히 하면 전법전달과 설법에 자유자재하게 표현하거나 말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전법자료를 구하는 훈련이다. 전법자료는 경전자료, 불교서적과 논문 이외에도 시사적이거나 와이북스, 앳시리즈 등뿐만 아니라 인터넷 자료로 글, 이미지, 동영상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자료를 구해 전법이나 설법 주제에 맞게 가슴에 와 닿고, 이해하기 쉽고, 실천하기 좋게 주제선정을 하고 순서를 정해 배열하고 전법, 설법교안을 작성하고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해야 한다.

세 번째는 화자와 청자, 내용이 잘 조직되면 반복적인 훈련으로 실행하고 다시 수정하여 전법이나 설법교안을 데이터화하고 주제별 설법 대응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래서 불교경전의 내용을 암송하는 것, 교안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며 특히 한마음선원의 전법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마음 요전』을 암송하는 연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현장에서 전법하고 설법하고 상담하고 수행을 지도하는데 능통할 수 있게 자신의 능력을 배양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물이나 나무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걸림 없이

설법, 토론, 명상,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생애주기별 대상이나 직능별 대상에 맞춰 전법능력을 갖춘 전법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언어습득과 전법자료와 교안작성과 자료화 및 전법능력배양을 간략히 언급하였다. 물론 다른 수많은 전법훈련실습 방안이 있을 것이지만 지면상 이정도만 다루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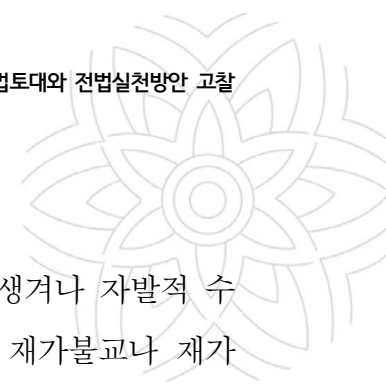
2. 적정 전법방안

1) 온·오프라인 활용

전법이나 포교의 종류는 표현 방법과 설득 수단에 따라 직접포교법과 간접포교법으로 구분하며 세부적으로 설법 등의 변론, 인쇄물 등의 문서, 재 등의 의식, 방송 등의 시청각, 음악 등의 예체능, 교육 등의 사업, 신도회 등의 조직, 상담, 정기적인 법회, 계층포교 등의 특수교화에 의한 포교로 구분한다.³⁷⁾ 현재에는 문화 전법이나 소셜미디어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 의한 전법이나 포교가 대중에게 더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한마음선원의 전법은 온·오프라인 비율을 최적화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온라인 활용방안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의 경우도 일방적으로 제공보다는 실시간적이고 대담이나 방송 후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은 일방향 유튜브가 아니라 양방향 유튜브로, 청자를 고려한 양방향 비대면이나 대면으로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또한 시청각

37)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편저(1995a), 79-80.



교재나 시청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직접 대면 전법의 경우 개인간의 소통이 중요하다. 승려가 아이에게 접근하는 것보다, 또한 세대 간의 접근보다 또래집단이 전법을 하는 것이 더욱 쉽다. 그것은 붓다의 전법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아사가 출가한 후 아사의 친구 54명이 출가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집단을 타겟으로 삼을 때에도 씨앗전법을 먼저 시도하고 거기서 믿음 있는 신자가 여러 명을 전법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직능별 전법을 시도할 경우에 용이한 방법이다.

2) 국내외 전법방안

상가락키타(Samgharakkhita)가 설립한 불교단체의 경우³⁸⁾를 보면 봉사와 수행을 중심으로 한 단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청년들이 수행을 하면서 가르치고 동시에 자신의 삶을 일부 즉 1년이나 다년간 수입공장에서 일을 해 그 이윤을 전 세계 전법활동지원금으로 사용한다. 아울러 불교경전이나 번역서 등을 심지어 아프리카 등에게까지 보내고 있다는 점은 해외포교의 새로운 시도로 보고 있다. 아울러 아마라와띠(Amaravati)³⁹⁾처럼 여러 나라에서 승려나 재가가 모여 수행을 하고는 공간으로 훌륭한 스승의 지도를 받고 배운 수행력으로 전법에 솔선하는 체계를 갖추게 한다. 독일의 경우⁴⁰⁾는 티베트 사원처럼 센터를 갖추고 있는

38) <https://thebuddhistcentre.com/text/our-history> 1967년 상가락키타(Samgharakkhita)가 the FWBO(the Friends of the Western Buddhist Order (FWBO) 설립했으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단체로 2010년 the Triratna Buddhist Order and Triratna Buddhist Community로 변경하였다.

39) <https://amaravati.org/> 상좌부 전통을 따르는 사원이다.

40) https://de.wikipedia.org/wiki/Buddhismus_in_Deutschland 독일의 불교역사와 단체, 현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마을마다 수행터나 수행집단이 생겨나 자발적 수행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경우는 주로 재가불교나 재가 중심의 명상센터 전법을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교를 드러내는 대신 정신적인 안정과 깊은 명상체험을 맛보고자 하는 서구인의 욕구에 적합한 전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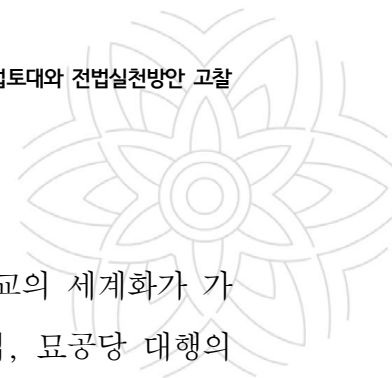
혜선은 한마음선원이 나아갈 방향을 세 가지 즉, 청소년 대안학교, 대학 또는 대학원대학교 같은 공인 교육기관의 학교 설립, 대행선연구원의 학술적 역할을 통한 대행선연구의 체계화, 국제선센터 건립, 영어 학술지 발간 등의 대행선의 국제화로 제시하였다.⁴¹⁾

아직 국내에 전법플랫폼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이유로 한마음선원은 선도적으로 한마음선원의 전법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전법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준비위를 구성하여 팀을 형성해야 한다. 전법자료수집, 전법환경의 조사, 전법교육자 선정, 승려와 재가의 전법대상 순차적 선정, 대상의 전법능력 평가 및 문제점 발견, 전법대상에 맞는 전법 프로그램 개발, 전법사 양성 중·단기 프로그램 마련하여 전법시스템 구축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전법은 세대간, 또래간, 직능별로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대일, 일대다, 다대일, 다대다의 다양한 전법시도도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는 일대일 전법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의 전법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온누리교회의 일대일 교육에서 보듯이 새신자교육이나 간부교육에서 일대일의 집중교육을 통해 새신자가 한마음선원에 단기적으로 적응하도록 유도하고 간부들은

재 불자수(27만) 등 간략한 독일불교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41) 혜선(이균희) (2022), 118-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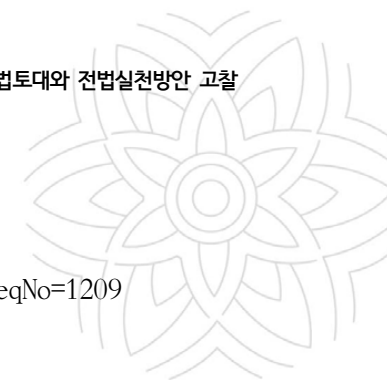
전법능력을 배양해 그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내전법의 경우 반드시 전법인재를 우선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한 부류는 전법능력을 배양하고 한 부류는 전법환경을 개선하는 팀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법프로그램을 통해 철저히 훈련받은 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에 전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문화강좌와 더불어 지역봉사활동이 필요하다. 한마음의 전법정신을 공고히 하고 전법의 자료와 내용을 이해하고 전법이론과 실천기술을 습득하고 전법경험을 쌓아 전법을 실천에서 진행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IV. 나오는 말

이상에서 한마음선원의 전법현황, 전법의 토대와 방안을 살펴보았다. 한마음선원은 150명의 비구니와 비구 그리고 한마음선원만의 특별한 전법자료 그리고 연구인력, 수많은 전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신도를 지니고 있다.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전법전문가뿐만 아니라 설법전법가, 명상전문가, 상담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천이론과 실천기술의 노화우를 전수하여 전법능력을 극대화하는 역할조절과 활동에 진력해야 한다. 그래서 전법교육기관의 형성과 플랫폼 구축, 국내외 전법인재 양성과 훈련을 통해 신앙과 수행, 연구체계가 조화를 이루고 묘공당 대행의 유지를 잘 받들어 대행선연구의 체계와 한마음선원의 국제화에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붓다의 제자가 붓다의 가르침을 잘 계승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면서 전법하며 행복한 제자가 되었기에 불교의 세계화가 가능해졌다. 소통하고 터놓는 전법, 동체대비의 현장전법, 묘공당 대행의 중요 문구 사경, 『한마음 요전』의 읽기모임, 묘공당 대행의 생애 성지 탐방 등 다양한 전법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이처럼 묘공당 대행의 가르침을 잘 이어 수행과 전법에 진력하는 한마음선원 제자가 된다면 일상생활에서 한마음 주인공관법 수행, 신앙과 전법활동을 통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전법은 중생구제의 절대적 확신에서 비롯된다. 한마음선원의 전법토대는 묘공당 대행이 설법하고 대담하고 행동한 모든 삶과 말씀의 자료에 내포되어 있다. 『한마음 요전』 등의 출판자료 및 비디오, 육성자료 및 사찰의 환경은 모두 전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불교경전과 다양한 온·오프라인 자료는 묘공당 대행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해하는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법자료의 구축하고 활용가능한 데이터를 보급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전법인재를 양성할 교재와 전법교육 프로그램, 전법기술을 전수하고 훈련하는 토대를 마련한다면 한마음선원의 새로운 국내외 전법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Vin: Vinayapiṭaka

MN: Majjhimanikāya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편지(1995a), 『포교방법론』1, 조계종출판사; 서울.

_____ (1995b), 『포교방법론』2, 조계종출판사; 서울.

한마음선원(2017), 『한마음 요전』, 한마음선원; 안양.

현대불교신문 엮음(2015), 『생활속의 불법수행』, 한마음선원; 안양.

김응철(2012), 「전도선언에 담긴 전법의 정신과 방법」, 『전법학연구』,

불광연구원: 서울

백도수(2012), 「전법의 이념과 역사적 전개」, 『전법학연구』, 불광연

구원: 서울

백도수(2014), 「붓다의 비유전법에 대한 고찰-초기불전의 직유전법을

중심으로-」, 『전법학연구』5호, 불광연구원: 서울.

백도수(2020), 「그림의 전법활용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불교문화』,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최원섭(2017), 「방송 매개 전법을 위한 불교 콘텐츠 구성방향」, 『전법학

연구』5호, 불광연구원: 서울.

혜선(이균희)(2022), 「생활참선 수행도량, 한마음선원의 포교현황과 미

래의 방향」, 『한마음연구』 9집, 대행선연구원; 안양.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9>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2) 종교에 대한 인식

<http://tongdosa.or.kr/map>

https://hanmaum.org/content/one_org_02?me_code=1080100000

‘선원의 조직과 단체’

https://hanmaum.org/content/one_status_global?me_code=1040300000

https://nyk.hanmaum.org/content/con_Individual_newyork_10?me_code=

3010000000

<https://www.hanmaumdc.org/>

https://ger.hanmaum.org/jiwon_news/1665

www.onnuri.org

<https://www.jungto.org/pomnyun/talk>

<https://band.us/@seoulzz>

https://www.bbsi.co.kr/HOME/tv/tv_onair_vod_list.html?ProgramCode=1405

<https://www.bing.com/videos/search?q=%ED%95%9C%EB%A7%88%E>

C%9D%8C%EA% B3%B5%EB%B0%A9 ‘한마음공방’

<https://thebuddhistcentre.com/text/our-history>

https://de.wikipedia.org/wiki/Buddhismus_in_Deutschland

<https://amaravati.org/>

<https://ko.wikipedia.org/wiki/%ED%95%98%EB%B8%8C%EB%A3%A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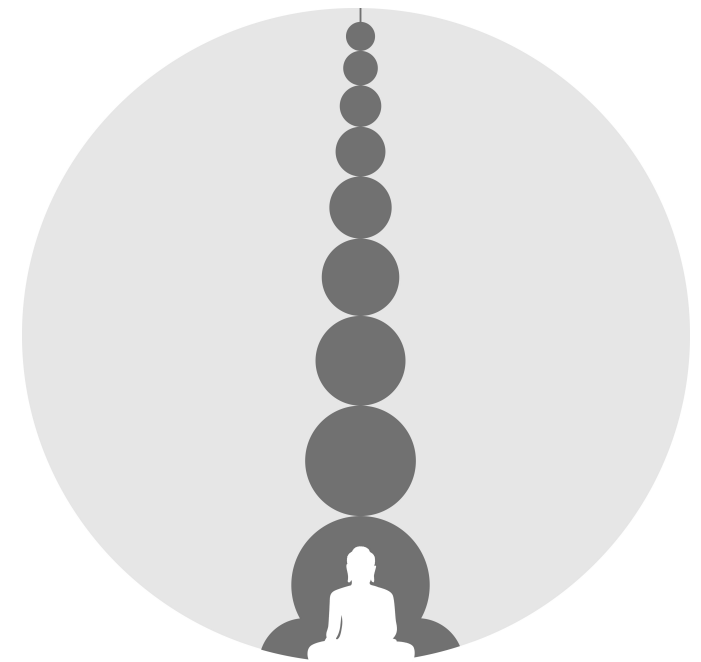
%ED%8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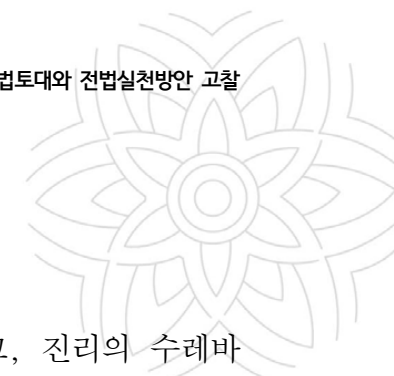
<https://www.youtube.com/watch?v=PTc8X37oJBE> ‘Om Namah Shivaya -

Krishna Das Live! Songs With Lyrics’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만화+빠알리대장경

http://www.buddhanet.net/dhammapada/d_twin.htm





논평-1 「한마음선원의 전법토대와 전법실천방안 고찰」을 읽고

서재영 (성균관대 초빙교수)

- 동국대 선학과에서 「선의 생태철학연구」 박사학위 수여.
-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조계종 불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을 지냄.
- 현재 성균관대 초빙교수와 성철사상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음.
- 저서로 『선의 생태철학』, 『불교와 환경』 (공저), 『아침바다 붉은 해 솟아오르네』 (공저) 등이 있으며, 40 여 편의 불교논문을 발표했다.

매일매일 불전에 올리는 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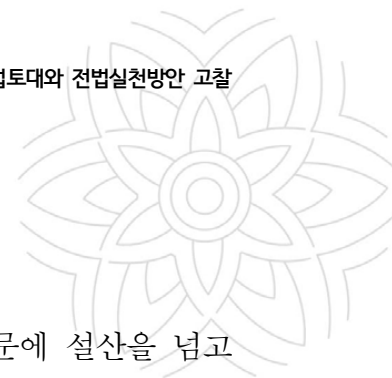
佛日增輝 法輪常轉! 부처님의 태양은 더욱 빛나고, 진리의 수레바퀴는 항상 굴러가기를 발원하는 行禪祝願의 한 대목이다. 禪의 실천을 다짐하는 축원인데 그 핵심적 가치는 轉法이 자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발원자는 이를 위해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만행과 지장의 서원과 관음의 분신을 본받아 시방세계에 두루 몸을 나투어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무위에 들게 하겠다(普令衆生入無爲)고 다짐한다.

날마다 불전에 올리는 행선축원의 내용을 보면 불법의 태양이 날마다 빛나고 진리의 수레바퀴가 항상 굴러가게 하는 것이 불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백도수 교수님(이하 논자)의 발표주제인 “한마음선원의 전법토대와 전법실천방안 고찰”은 교단과 불자가 늘 고민하고 연구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탈종교화 시대와 교단의 위기

전법은 모든 불교종단과 사찰에서 고민해야 할 핵심적 주제이기에 묘공당 대행선사의 사상을 전법의 차원에서 조명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시도라고 평가된다. 현재 한국사회에는 탈종교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1위를 지키던 불교는 제2종교로 추락했다. 2018년 문체부에서 발표한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에 따르면 불교는 2015년 11월 기준으로 약 760만 명으로 종교인구 중 15.3%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2005년 1천만이던 불자가 불과 10년 만에 3백만 가까이 줄어들어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종교인구의 감소는 한국사회의 보편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교인구보다 비종교 인구가 54%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불교계



에서는 신도수 감소에 그치지 않고 2차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출산율 감소에 따른 출가자의 감소, 여권 향상과 비구니 출가의 급감, 학생회와 대불련 등 청년불자의 급감, 출가자 감소에 따라 승가대의 존폐 위기, 불교의 대사회적 영향력 감소 등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세상은 온통 물질 만능과 욕망의 질주로 인해 기후 위기 등 각종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불교적 가치와 불교적 삶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전법의 관점에서 대행스님의 사상을 분석하고 한마음선원의 진로를 모색하는 것은 당위적인 시도라고 평가된다.

불교는 전법의 종교

흔히 불교는 인연법을 소중히 하며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절에 오라고 적극적으로 권하지도 않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잘 왔다고 환대하는 문화도 타종교에 비하면 덜한 편이다. 제가 좋아서 인연 따라 왔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과 함께 따라다니는 또 다른 생각은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고, 사찰은 깊은 산속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히 불교는 은둔의 종교처럼 인식하게 만든다.

하지만 불교의 특성을 잘 이해한다면 이것은 전혀 불자다운 인식이 아니다. 부처님의 삶과 경전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것은 오해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녹야원으로 달려가 5비구에게 초전법륜을 굴린 일이다. 이후 부처님은 45년 동안 드넓은 인도 땅에 불법을 전하기 위해 전법행을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입멸에 드시던 날 밤까지도 설법을 하였고, 그날 밤 늙은 바라

문 수밧다를 제자로 맞이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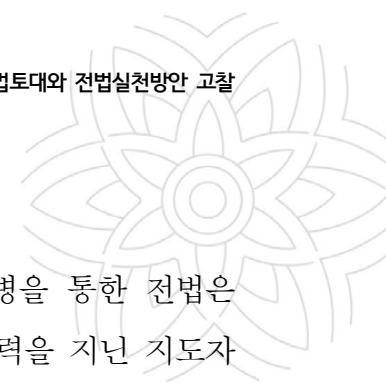
불교는 이처럼 전법을 핵심으로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설산을 넘고 광활한 사막을 가로질러 중앙아시아로 퍼져가고,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까지 불음이 전해졌다. 무수한 전법승과 구법승들의 목숨을 건 전법행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도 가능하다.

이런 전통은 선종을 표방하는 조계종의 종헌에도 잘 나타나 있다. 조계종 종헌 제2조에는 “조계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自覺覺他 覺行圓滿한 근본교리를 받들어 체득하고 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함을 중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수행과 교리를 바탕으로 귀결되는 목표는 스스로 깨치는 見성과 법을 전하여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불교에서 전법은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며, 불자의 근본적 사명임을 알 수 있다.

발표문의 내용과 논지에 공감하며

본고는 한마음선원이 가진 전법의 현황을 점검하고 전법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제안을 담아내고 있다. 제Ⅱ장에서 ‘한마음선원의 전법현황과 그 토대’를 통해 현황과 기반을 분석하고 있고, 제Ⅲ장에서 ‘한마음선원의 전법실천방안’을 통해 전법 활성화를 위한 실천 방향을 다방면에 걸쳐 제시하고 있다.

논자의 분석과 제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공감하는 내용이다. 글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평이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당위적 내용이므로 별도로 요약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점은 따로 없다. 전법을 위한 점검과 세세한 지침서 같은 내용이므로 특별히 토를 달거나 반론을 제기할 대상의 글은 아니다. 다만 평자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사족을 붙이는 것으로 평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첫째 전방위적 대안 제시와 핵심 전략에 대해

논자는 전법 실천 항목에서 여러 가지 대안과 과제에 대해 많은 내용을 나열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전법 교육과 제도 구축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안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대한 내용들은 한국불교 전체가 나서도 잘 해내기 벅찬 내용들로 보이기도 한다.

논자의 글을 보면 모든 부분에 걸쳐 빠짐없이 다 잘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모두 옳은 지적이고 맞는 말이긴 하나 이 글의 결론은 “모든 방면에 걸쳐 열심히 다 잘하면 전법은 잘 된다!”라는 내용으로 귀결되는 느낌이다. 모두 옳은 내용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도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사안이 있는 법이다. 이에 대한 논자의 견해를 청하고자 한다.

둘째, 치병을 통한 전법 전통과 이후 대안에 대해

논자는 “붓다와 묘공당 대행의 전법 특징 비교”를 통해 묘공당 대행 선사님의 전법이 갖는 특징으로 “치병을 통한 전법”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즉 묘공당은 “치병을 전법에 적극 활용하였으며 전법의 토대로서의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원주에서 안양으로 이전하였다.”고 분석했다. 묘공당의 전법적 특징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치병이었고, 이것이 한마음선원의 교세 확장에 주요한 근간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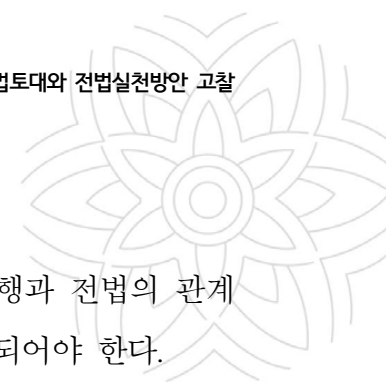
전통적으로 종교는 치병과 밀접한 관계를 지녀왔고, 근현대에 등장한 천태종 등에서도 치병은 중요한 전법의 매개였다. 다만 이제는 치병

을 통한 전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이다. 첫째, 치병을 통한 전법은 치료 능력이 있는 사람의 역량이 절대적이다. 치료 능력을 지닌 지도자가 있다면 문제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둘째, 의료체계가 자리잡히고, 보험제도가 잘 정비된 현대사회에서는 병의 치료는 의료기관의 영역이 되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사안은 한마음선원의 성장동력이었던 치병을 통한 전법이 새로운 내용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물론 치병과 관련된 내용이 완전히 의미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부처님을 일러 大醫王이라고 부르고, 부처님은 병에 따라 약을 처방한다고 말한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것임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다만 그 치료가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삼독에 중독된 마음의 병, 왜곡된 문명이 초래한 문명의 병 등을 치료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치병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런 치병을 잘하는 것이 불교의 본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치병은 새롭게 의미가 해석되어야 하고,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셋째, 스와트 분석의 위기 항목에 대해

논자는 스와트 분석에서 한마음 선원의 위기 항목으로 ‘종교와 불교의 위기 시기’, ‘인구수 감소’, ‘종교인수 감소’, ‘불교위상 감소’, ‘대행스님 열반’ 등을 들고 있다. 여기서 대부분의 항목은 불교 일반의 위기 상황과 겹치므로 한마음선원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한 가지 주목할 대목은 ‘대행스님 열반’이다. 대행스님은 지난 2012년에 입적했으며 그 후 10년이 경과 했다. 한마음선원을 일군 대행스님의 부재는 분명 위기 요소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대행스님의 부재로 분열



이나 갈등 등 부정적 요소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스님 열반 이후 2세 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런 점에서 대행스님 열반을 스와트 분석에서 위기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은 경과 된 시간을 고려하면 적절치 않아 보인다. 그런 위기는 이미 해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에 대한 논자의 설명을 청하고자 한다.

넷째, 전법토대에서 전법정신 부분에 대해

『유마경』에서는 ‘心淸淨國土淨’이라고 했다. 이는 어떤 일이든 마음이 우선이라는 것이고, 모든 사업에 있어 가치와 비전이 핵심 토대가 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같은 맥락에서 한마음선원의 전법 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 역시 전법에 대한 가치관과 구성원들의 인식이다.

논자는 대행스님은 “걸림이 없이 자연스러운 언행 ... 천성이 매우 온화하셨다. 제자들과 신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결같았고 그들을 응대하심에 있어 조금도 넘고 처짐이 없이 평등하셨다...마음이 항상 자상하셨다.”라는 점을 들어 “이처럼 전법자는 선하고 자비로운 품성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무차별 응대하고 사섭법을 통해 전법의 마음을 삼고 욕과 모함의 위험조차도 감내해야 한다는 전법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한마음선원의 전법정신이 될만하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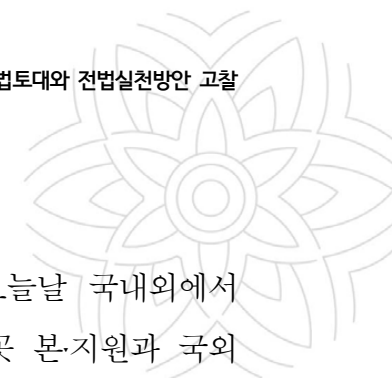
요약하자면 선하고 자비로운 품성, 차별 없는 평등한 응대, 모욕 등을 감내하는 강한 의지 등이 묘공당의 전법정신이 될만한 것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덕목은 너무 평면적이고 존경받는 스님이라면 당연한 품성으로써 전법정신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빈약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왜 전법을 해야 하는지, 전법자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전법자의 자세와 각오는 어떠해야 하는지, 신행과 전법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와 같은 교학적 내용과 철학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일례로 불광운동을 일으킨 광덕스님은 ‘법등오서(法燈五誓)’를 통해 전법의 가치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전법조직으로 법등을 구축하고, 전법을 중심으로 불광의 신행 전반을 설계했다. 법등오서에 따르면 “전법으로 바른 믿음을 삼고, 전법으로 정정진을 삼으며, 전법으로 무상공덕을 삼고, 전법으로 최상의 보은으로 삼고, 전법으로 정토를 성취하겠다.”는 다짐을 제시하고 있다. 전법과 신행, 전법과 수행을 일체화 시키고 있음을 엿 볼 수 있다.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사람을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여건을 갖추는 것도 전법에서 중요한 대목이다. 하지만 전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가치관과 정신이다. 그런 점에서 한마음선원의 전법을 추동할 수 있는 전법 정신의 확립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법문에서 전법의 당위, 전법의 중요성, 전법자의 태도, 전법의 방편 등에 대한 분석과 정리가 필요하다. 제도와 시스템은 그런 정신적 가치를 따라 설계되는 것이 순서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두서없는 내용으로 논평을 대신하며 끝으로 전법행을 다시 고민하게 해 주신 논자에게 감사를 표하며 토론을 마친다.



논평 - 2 「한마음선원의 전법토대와 전법실천방안 고찰」 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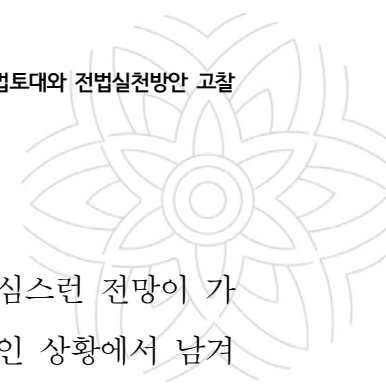
김봉래 (불교방송 전법후원국장)

-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였고,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음 .
- 불교방송 보도국 입사하여 정치외교팀장, 기획관리국장, 전법후원국장 등을 역임하였고, 대한불교조계종 국제포교사회 제 4 대 회장을 역임하였음 .
- 현재 서울대불교동문회 회장직과 불교방송 전법후원국장직을 맡고 있음 .
- 저서 및 논문으로는, 동국대 대학원 인도철학과 석사학위 논문인 「法稱의 他心存在證明 (Samtanantarassiddhi)」 (1992) 이 있음 .
- 수상 내력으로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공로패를 수상한 바 있음 .

묘공당 대행스님이 기초를 닦은 한마음선원은 오늘날 국내외에서 활약하는 150여명의 스님과 수십만의 신도, 전국 15곳 본·지원과 국외 9개 지원, 그밖에 다양한 산하 기구·기관의 활동으로 결실을 맺으며 한국불교현대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강해지는 탈종교 경향으로 한국불교를 비롯한 각 종교는 신도수의 감소와 노령화라는 현실에서 새로운 미래비전 제시와 실천을 요구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백도수 능인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발표는 한마음선원의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발표문은 한마음선원의 전법현황과 토대, 그리고 전법실천방안 고찰을 주제로 하고 있다. 현재의 전법현황은 국내외 현황을 고찰하고, 전법토대는 묘공당 대행스님의 전법사상과 실천, 전법의 환경을 고찰하고 있다. 그리고 전법실천방안은 전법실천에서 전법실천이론과 기술, 전법훈련실습을 다루고, 전법방안에서는 현실에 어울리는 맞춤 전법 방안으로 온오프라인 활용과 국내외 전법방안을 다룬다. 논문 말미의 다음과 같은 글은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데 염두에 둘 화두로 사료되어 인용해 본다.

“한마음선원의 전법토대는 대행스님이 설법하고 대담하고 행동한 모든 삶과 말씀의 자료에 내포되어 있다. 한마음 요전 등의 출판자료, 비디오, 육성자료, 사찰의 환경은 모두 전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불교경전과 다양한 온·오프라인 자료는 묘공당 대행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해하는 도구로써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법자료를 구축하고 활용가능한 데이터를 보급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전법인자를 양성할 교재와 전법교육 프로그램, 전법기술을 전수하고 훈련하는



토대를 마련한다면 한마음선원의 새로운 국내외 전법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발표자는 SWOT분석을 통해 한마음선원의 강점과 단점, 위기와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마음선원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미래발전의 토대 마련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논평자는 그런 논조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발표 내용 가운데 그간의 성공요인과 정체요인을 분석하고, 대책과 관련하여 언급한 뒤, 미래대안 마련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성공요인과 정체요인]

발표자가 SWOT에서 제시한 각 항은 한마음선원의 성공요인과 정체요인을 보여주고 있다. 강점으로는 승려수, 음악회, 신도의 신심, 본원구심력, 연구활동, 지속적 법회활동, 신도활동 등이 꼽혔다. 약점으로는 승려교육, 재가교육, 인터넷 관리, 다양한 교육콘텐츠, 창의적 대안부족, 경직된 연구방향, 인터넷 소통의 부재, 신도교육 체계화 문제, 외국인 전법의 역량 등이 꼽혔다. 그리고 기회요인으로는 새로운 환경조성, 변화 시도, 연구활동, 국제화 가능성, 전법교육과 실천, 온라인 연결망, 명상과 상담활성화 등이, 위기요인으로는 종교와 불교의 위기시기, 인구수 감소, 종교인수 감소, 불교위상 감소, 대행스님 열반 등이 꼽혔다.

문제는 약점은 당분간 약점으로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강점이 계속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강점이 약점이 되는데 반해 약점이 짧은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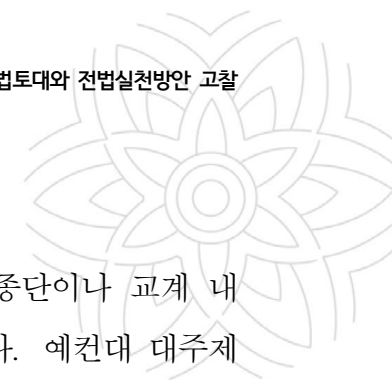
간 내에 강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조심스런 전망이 가능하다. 특히 대행스님 열반 이후 정신적 지주가 공백인 상황에서 남겨진 가르침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이 얼마나 유지 가능할지 위기감은 적지 않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해법의 원천은 대행스님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스님의 가르침에 대한 공부와 전법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는 발표자가 대행스님의 내면적 대화와 자비심, 경험이 전법의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전법자가 대행스님의 깨달음에 가까운 종교적 체험이 바탕이 되지 않거나 방편이 다소 부족할 경우 전법의 구심점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구성원 모두에게 새로운 발심과 정진의 과제를 던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대책]

발표자는 한마음요전을 비롯한 대행스님의 가르침과 삶이 담긴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체화하는 노력도 포함된다. 특히 소통과 법담의 필요성,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안들도 제시하고 있다. 발표자는 또 인재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커지는 점에서 수준별 맞춤형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특히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질의응답으로 잘 정리하여 문답집을 만들고 문답훈련을 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한다. 법문을 듣고 나면 각자 이해한 정도도 다르고 떠오르는 의문도 다르기 때문에 법문을 들은 뒤



에는 반드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같은 내용을 꾸준히 외우고 도반들끼리 그 가르침의 의미와 가치, 실천방안 등을 놓고 법담을 나눈다면 가르침이 더욱 깊이 이해되고 체화되면서 주위에 감동을 주고 공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일문일답 Q&A식 질의응답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살아있는 질의응답이 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배운 논강과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하며, 선가에서 이어온 활발발한 법거량 문화도 계승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주장만 있지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문화가 약하다고 걱정들을 한다. 심지어 대인관계에 가장 기초가 되는 가족 간에도 세대 갈등, 이념 갈등이 심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집안에서 직장에서도 사찰에서 어디서든 대화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불교계가 앞장서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런 과정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좋은 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문화의 세기에 문화포교의 중요성을 지적해 주신데도 공감한다. 다만 불교적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은 초심자나 일반들-무종교가 전체 국민의 절반-이 접근할 수 있도록 불교색채를 아예 빼거나 대폭 탈색한 프로그램도 아울러 진행되었으면 한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정보를 접하지 못하면 접근할 길이 없으며, 일단 접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용어부터 불교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고 수준도 대폭 낮춰 대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찬불음악도 가사를 꼭 경전내용에서 찾는 것만이 아닌 그 의취가 불교에 부합하는 내용이면 좋겠다.

한마음선원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외에 종단이나 교계 내외 단체 등과 협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되었으면 한다. 예컨대 대주제를 담은 공동캠페인을 추진하고 각 단체가 소주제를 분담해 진행한다면 역할분담도 되고 소구하는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력도 더 커질 것 같다. 무엇보다 불교라는 지향점에서 공감대가 큰 교계매체를 잘 활용하면 홍보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국내외 프로젝트 및 온·오프라인 프로젝트에서도 공히 적용되는 원칙일 것이다.

[질문]

①부처님과 대행스님의 전법특징을 표로 나타내 주셨는데, 양자가 무 자르듯 양분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예컨대, 문제해결을 통한 전법이 대행스님께만 적용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신통력에 의한 전법은 부처님의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징으로 삼을 수 있을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②스님과 신도 모두 교육이 중요하고 전법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스님과 신도 각각에 특화된 교육과정도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전문가가 되기는 쉽지 않으며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서로 소외되지 않고 소통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스님과 스님, 스님과 신도, 신도와 신도 간 소통하고 실천하는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 상황과 견주어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③전법실천방안의 하나로 문답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식전달 위주의 문답훈련이 아닌 수행에 도움이 되고 생활에서 살아나는 생동감 있는 문답훈련이 될 수 있을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④대행스님은 세간에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불교를 제시해 주셨다고 사료됩니다. 자칫 명상 중심의 수행이 이웃과 사회에 대한 관심을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는 없는지 대행스님의 수행 가르침을 중심으로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⑤전법포교에 성공한 선지식들은 대부분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 경전 한글화에 앞장서고 찬불음악 포교에 앞장섰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종교에서 가스펠이 선교에 큰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불교를 알기 쉽고 생동감 있게 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말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음악포교의 연관성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⑥뉴미디어 발달에 따른 대책이 강화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한 예로 양방향 유튜브 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만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전법의 가치가 여전히 소중하고 미디어를 활용한 1대 다(多)의 소통 방식이 여전히 효율적일 수 있다고 할 때 뉴미디어와 기존 매체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⑦한마음과학원의 연구 방향과 관련해 집중연구의 결과물을 축적하는 것이 효과적인 연구활동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는데, 장단기적으로는 어떤 쪽에 집중연구가 필요할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